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SPECIAL THEME: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with 백혜선>

예술과
춤

만남



2025
08+09
VOLUME 174

CONTENTS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5년 08+09월
통권 174호
ISSN 2234-5949

SPECIAL

- 06 VIEW
유럽 클래식 음악의 심장,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
이번 공연이 당신에게 특별한 이유
- 12 THEME
브뤼셀에서 서울로,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국에서 새로운 무대의 장을 이어가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역사와 한국 클래식계와의 인연
- 18 INTERVIEW
좌절을 넘어 다시, 행복의 한가운데로
백혜선 피아니스트

STAGE

- 22 PREVIEW
①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이 필요 없는 무대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
- ② 떠오르는 두 샛별,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만나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 ③ 정통 재즈 빅밴드와 떠나는, 흥겨운 음악 여행
DMZ 재즈 오케스트라의 <스윙 앤 핑키>
- 30 REVIEW
① 동시대-국악의 뜻과 가능성이 '전달'된 순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MESSENGER>
- ② 잊혀진 악장으로 시작된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II <여행>
- ③ '경기도'를 딛고 떠났던 먼 여정과 남은 바람들
경기도국단 <창작희곡의 발견-낭독극>

INSIGHT

- 40 ART AND THE CITY
평창, 대자연의 보고 안에서 어우러지는 거대한 음악당
- 46 ATTRACTION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속 예술
- 52 ARTIST TALK
예술인과 함께, 성장을 향한 특별한 동행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5인 인터뷰
- 58 ON & OFF
온라인의 인기가 문화예술 '굿즈' 인기로!
- 60 ESG & ART SCENE
기후 위기 시대의 예술: 공생을 위한 실천적 제안

GGAC STORY

- 64 ZOOM IN
함께 이끄는 경기아트센터의 변화 속으로!
前 조직혁신 TF팀 김기현 팀장, 김혁진 주임, 노은영 주임PD
- 68 GGAC NEWS
- 70 CALENDAR
- 72 EPILOGUE

발행일 2025년 9월 2일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김상희
편집장 임선미
편집 담당 김규량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6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편집·디자인 문화공감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예술과만남>을 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백혜선 피아니스트

만남

MINI INTERVIEW

“이런 귀한 기회를 만들어준 경기아트센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벨기에에서 만났던 국립교향악단과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199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에서 로너드 졸만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파트리스 샬로 <비탄의 도시로>를 협연했던 기억도, 파비올라 여왕을 뵈었던 장면도 잊을 수 없습니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벨기에 클래식 음악의 심장과도 같은 보자의 상주 악단으로, 올해는 안토니 헤르무스의 지휘가 더해지며 다시 한번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SPECIAL



VIEW

유럽 클래식 음악의 심장,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
이번 공연이 당신에게 특별한 이유

THEME

브뤼셀에서 서울로,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국에서 새로운 무대의 장을 이어가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역사와 한국 클래식계와의 인연

INTERVIEW

좌절을 넘어 다시, 행복의 한가운데로
백혜선 피아니스트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BELGIAN NATIONAL ORCHESTRA

with. 백혜선

2025.9.26.FRI

7:30 PM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지휘

연주

피아노

안토니 헤르무스
Antony Hermus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Belgian National Orchestra

백혜선
Haesun Paik

모차르트, '티토 황제의 자비' 서곡 K.621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Eb장조 Op.73 '황제' 브람스, 교향곡 제1번 c단조 Op.68

티켓가격 VIP석 120,000원 |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티켓예매 NOL티켓, 경기아트센터 주최/주관 경기아트센터 문의 031-230-3200

Antony Hermus © Marco Borggreve | 백혜선 © Taeuk Kang | Belgian National Orchestra © Barth Decobecq

유럽 클래식 음악의 심장,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

이번 공연이 당신에게 특별한 이유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가 이번 9월 경기아트센터에서 첫 내한공연을 펼친다. 서울, 안동에 이어 세 번째 무대다. 피아니스트 백혜선과의 협연으로 더욱 뜨거워진 이번 무대에 특히 주목해야 할 뷰 포인트가 무엇일지 짚어 본다.

글. 김준형(음악 칼럼니스트)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거장 탄생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했던 클래식 역사의 증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레오니드 코간, 에밀 길렐스,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이들은 전설로 남은 클래식계의 거장이자 모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Queen Elisabeth Competition) 우승자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이렇듯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명실상부한 거장의 산실이다. 특히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바이올린 부문 1위를 차지했던 기돈 크레머가 3위 입상(1967년)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가 얼마나 치열한지 잘 보여준다.

1937년, 벨기에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외젠 이자이(Eugene Ysaye)를 기리기 위해 벨기에 여왕 엘리자베스가 설립한 콩쿠르는 최초 '이자이 콩쿠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1951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첼로 등 분야별로 4년 주기로 열리며, 연주자에게 혹독한 과정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큰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콩쿠르로 알려졌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이렇듯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협력 오케스트라로서 결선 무대를 함께하며, 뛰어난 예비 거장의 탄생을 함께해왔다.

한국 클래식계 선구자, 피아니스트 백혜선과의 협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한국 클래식 음악계와도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 바이올린 부문에서 임지영이 치열한 경쟁 끝에 우승을 차지했고, 2022년 첼로 부문에서는 최하영이 1위에 올라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성악 부문에서도 황수미, 김태한이 각각 정상에 오르며, 아시아 클래식 음악의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성공은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같은 선배의 분투가 있기에 가능했다. 그녀는 199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결선에 진출하여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로너드 졸만의 지휘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파트리스 샬로 <비탄의 도시로>를 연주했다. 최종 4위를 수상한 백혜선은 한국 클래식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34년이 지난 지금, 백혜선은 이 오케스트라와 재회해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함께 오른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유럽 클래식 핵심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1931년 데지레 데포(Desire Defauw, 1885-1960)가 창설한 브뤼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기원으로 한다. 1936년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Belgium National Orchestra, BNO)로 이름을 바꾸며 창단 원년으로 삼았다. 벨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보자르(BOZAR Centre for Fine Arts, Palais des Beaux-Arts) 내 앙리 르 보이프 홀(Henry Le Bœuf Hall)에 기반을 두고 매 시즌 70여 회의 국내외 공연을 소화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0여 명의 재능 있는 단원들이 소속된 BNO는 고전 및 낭만주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연주하면서도 20세기와 현대 음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특히 벨기에 및 유럽 초연곡, 세계 초연곡을 꾸준히 선보이며 현대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머스 아데스(Thomas Ades)와 이제는 작고한 빔 헨데릭스(Wim Henderickx)가 시즌 작곡가로 함께했으며, 진은숙, 릴리 불랑제(Lili Boulanger), 소피아 구바이둘리나(Sofia Gubaidulina)와 같은 여성 작곡가들을 자주 조명한다. 정기적으로 아넬리스 반 파리스(Annelies Van Parys), 마이클 도허티(Michael Daugherty), 앤드류 노먼(Andrew Norman) 등의 작곡가들과 함께 벨기에 및 유럽 초연 작품들을 선보였고, 피트 스베르츠(Piet Swerts)와 게이코 드보(Keiko Devaux)와 같은 작곡가들의 세계 초연 작품들도 무대에 올렸다. 파리 필하모니,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바우 등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해외 투어 공연을 진행하며 벨기에 국가대표 음악 대사로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브뤼셀의 음악 대사로서 보자르 외에도 벨기에 왕립 극장인 라 모네(La Monnaie) 같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유럽 거장의 예술혼이 깃든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수많은 명지휘자와 함께하며 그 정체성과 예술적 깊이를 다져왔다. 이 단체를 거쳐 간 지휘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로 그것이 거장의 역사다.

초대 상임지휘자 앙드레 클뤼탕스(Andre Cluytens)는 벨기에가 낳은 세계적 지휘자로, 정제된 해석과 섬세한 음색으로 오케스트라의 기반을 닦았다. 클뤼탕스 이전에는 창단 지휘자 데지레 데포를 비롯해, 칼 뵘(Karl Bohm), 에리히 클라이버(Erich Kleiber), 피에르 몽퇴(Pierre Monteux)와 같은 20세기 유럽 음악의 거장들이 객원 지휘자로 참여하며 초석을 다졌다.

그 뒤를 이어 미하엘 길렌(Michael Gielen), 앙드레 반데르누트(Andre Vandernoot), 유리 시모노프(Yuri Simonov), 미코 프랑크(Mikko Franck), 발터 벨러(Walter Weller), 안드레이 보레이코(Andrey Boreyko), 휴 울프(Hugh Wolff) 등이 상임 지휘자로 재임하며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진화를 이끌었다. 이 지휘의 계보는 오늘의 상임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Antony Hermus)로 이어진다.

Belgian National Orchestra



장르 불문, 클래식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종횡무진 활약하는 지휘자

헤르무스는 네덜란드 음악계의 핵심적 존재다. 로열 콘서트허바우 오케스트라(Royal Concertgebouw Orchestra)를 비롯한 주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는 북네덜란드 오케스트라(North Netherlands Orchestra)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있었으며, 현재는 종신 명예 지휘자이다. 2009년부터 2015년 여름까지 독일 데사우(Dessau)시 안할트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했으며, 그의 첫 '링 사이클'로 임기를 마쳤다. 이후 이곳에서도 종신 명예 지휘자로 추대되었다.

헤르무스는 음악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하는 지휘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드라마틱한 감각, 명확한 음악적 흐름을 이끄는 능력, 그리고 통찰력 있는 접근 방식은 오페라 극장과 콘서트홀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헤르무스는 경력 전반에 걸쳐 유럽 전역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폭넓게 지휘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슈투트가르트, 스트라스부르, 예테보리, 베를린 코미셰 오퍼 등지에서 활약했다. 그는 로열 필하모닉,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 심포니, 그리고 갈리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정기적으로 객원 지휘하고 있다.

BNO

그의 디스코그래피를 살펴보면 사조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 세계를 실감할 수 있다. 내년에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첫 앨범이 '라 돌체 볼타' 레이블에서 발매될 예정이다. 이 앨범에는 러시아의 작곡가 메트너(Medtner)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이 담긴다. CPO와 Acousence 레이블로 출판된 기록들은 더욱 흥미롭다. 샤브리에, 라벨, 파야, 말러, 바그너 등 스펙타클한 관현악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은 물론이고, 클루가르트(Klughardt), 디펜브로크(Diepenbrock), 바헤나르(Wagenaar) 등 숨은 보석과 같은 작곡가들의 작품도 포괄한다. 거장 지휘자인 하우스제거(Hausegger)의 귀한 관현악 작품도 다루고 있으며, 오페라에 능한 지휘자답게 오베르(Auber)의 <포르티치 병어리 여인(La Muette de Portici)>도 있다.

헤르무스에게 음악은 사람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경험을 전달하는 매체다. 전통적인 콘서트 프로그램의 경계를 끊임없이 넓혀가며, 베네룩스 최대 규모의 팝 페스티벌 '로우랜즈(Lowlands)'에서 리게티를 선보이거나 '심포닉 시네마'와 같은 수많은 파격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그의 영민함은 아침에 리허설을 시작해 저녁에 멋진 연주회를 만들어낸 '스크래치 콘서트', 바일 페스티벌 레지던시로 기획 연주한 '트위트포니'로 증명된다. 트위터와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며 45명의 작품이 하루만에 2개 연주회에서 53곡의 작품을 초연했다. 남아프리카와 아르헨티나 등 세계 전역으로 생중계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클래식이 아니겠는가?

안토니 헤르무스는 여섯 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다. 그는 네덜란드 브라방 콘서바토리(현재의 틸뷔르흐 콘서바토리)에서 자크 드 티에주(Jacques de Tiege)에게 피아노를 배웠고, 야크 판 스텐(Jac van Steen)과 게오르크 프리츠슈(Georg Fritzsche)에게 지휘를 사사했다.

이제는 다음 세대 젊은 음악가들을 육성하는 데 깊이 헌신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국립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프로그램(National Master of Orchestral Conducting))의 방문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와 영국 왕립 북부 음악 대학(Royal Northern College of Music)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영국 북부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왕립 북부 음악 대학의 펠로우로 임명되었다. 네덜란드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예술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우리 무대에도 익숙하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객원 지휘자로 3번 내한하여 아르스 노바 시리즈에서 희귀한 현대음악은 물론, 브루크너 교향곡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리드하여 대단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연주 당시의 폭발적 반응이 생생하다.



ㄷ

안토니 헤르무스는 여섯 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다.
그는 네덜란드 브라방 콘서바토리(현재의 틸뷔르흐 콘서바토리)에서
자크 드 티에주(Jacques de Tiege)에게 피아노를 배웠고,
야크 판 스텐(Jac van Steen)과
게오르크 프리츠슈(Georg Fritzsche)에게 지휘를 사사했다.

ㄹ



유럽 정통 클래식 정수를 맞본다

고전에서 낭만 작품으로, 흐르듯 이어지는 탄탄한 구성의 프로그래밍도 기대 포인트 중 하나다. 첫 곡인 모차르트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는 창작열이 절정에 달한 말년에 쓰인 곡이다. 고전 오페라 서곡의 전형적인 작품으로 콘서트의 시작으로 더할 나위 없는 걸작이다. 이어지는 협연에서 백혜선이 선택한 작품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그녀가 특별히 애정하는 작품으로, 정명훈 지휘로 런던 심포니와 만났을 때, 뮌헨 필과의 협연에서도 선택한 작품. 백혜선 특유의 호쾌한 타건과 선 굵은 프레이징이 기대된다. 후반부는 브람스의 <교향곡 1번>, 베토벤의 <교향곡 10번>으로 불리듯, 고전주의적 형식미를 토대로 낭만 시대의 자유로움이 전체에 흐르는 작품이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고전 및 낭만주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연주하면서도 20세기와 현대 음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단체이다. 작품이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해석의 틀을 유지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혁신의 요소를 첨가하는지가 이번 공연의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다.

우리의 클래식 연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지금, 이번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은 음악을 넘어 문화적 공감과 예술적 소통의 장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준형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 분야에 깊은 조예를 지닌 칼럼니스트이다. <객석>과 <피아노 음악>, <스트라드>, <스트링 앤 보우> 등 국내 주요 음악 전문 매체에 오랜 기간 칼럼을 연재해 왔으며, 음악회 해설, 기획 프로그램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브뤼셀에서 서울로,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국에서 새로운 무대의 장을 이어가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역사와
한국 클래식계와의 인연

“음악은 시간을 공간으로, 공간을 시간으로 바꾼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는 음악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술로 보았다. 오랜 전통과 깊이 있는 감성의 클래식 음악은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을 통해 언뜻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낸다. 유럽 클래식 음악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Belgian National Orchestra)와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다 할 것이다.

정리,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창단, 그 역사의 시작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1936년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서 탄생했다. 당시 유럽은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의 격동기였지만, 벨기에는 음악과 예술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힘쓰고 있었다. 이에 1931년 창단된 브뤼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교향악 음악의 풍부한 역사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로 개칭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당시 브뤼셀에서는 제1회 만국평화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대회에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참석하여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이 있었다. 양국 모두에게 기념비적인 일들이 벌어진 해였다.

초기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브뤼셀의 복합 문화 공간인 보자르(BOZAR)를 주요 공연장으로 삼았다. 보자르는 단순한 콘서트홀을 넘어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모든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벨기에 문화 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이곳에서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수많은 명연을 펼쳐왔다. 창단 초기부터 고전 및 낭만주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동시대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무대에 올렸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리고 성장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이다. 오케스트라는 고전 및 낭만주의의 핵심 레퍼토리를 충실히 연주하면서도, 20세기와 현대 음악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독특한 음악적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성 음악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조명해 온 점이다. 릴리 불랑제(Lili Boulanger), 진 은숙, 소피아 구바이둘리나(Sofia Gubaidulina) 등 뛰어난 여성 작곡가들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연주했다. 또한, 아넬리스 반 파리스(Annelies Van Parys), 마이클 도허티(Michael Daugherty), 앤드류 노먼(Andrew Norman) 등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벨기에 및 유럽 초연으로 소개하며, 현대 음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레퍼토리 구성은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가 단순히 과거의 명작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음악 예술의 창조자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과정에서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세계적인 독주자들과의 협연을 통해 더욱 명성을 드높여왔다. 힐러리 한(Hilary Hahn), 니콜라이 루간스키(Nikolai Lugansky) 등 클래식 음악계의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는 관객들에게는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인 연주 경험을 선사했으며, 오케스트라 자체로는 끊임없는 음악적 성장의 발판이 되어 왔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한국과의 인연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공식 협력 오케스트라라는 점이다. 1937년 창설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쇼팽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불린다.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드는 클래식계의 올림픽과 같은 존재이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이 콩쿠르의 결선에서 협연 오케스트라로 활동하며, 차세대 클래식 스타들의 탄생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 백혜선 피아니스트의 명성을 확립한 것도 1991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4위 수상이 그 시작이었다. 이는 한국 클래식 음악계와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인연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당시 백혜선은 26세의 젊은 피아니스트로, 이미 1989년 윌리엄 카펠 콩쿠르 우승과 1990년 리즈 콩쿠르 입상의 경험이 있었지만,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그 어떤 대회보다

권위 있고 까다로운 무대였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특별함은 단순히 개인의 기교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음악가로서의 종합적 역량을 검증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결선에서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는 오케스트라와의 호흡, 무대 매너, 음악적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결선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 받았음을 의미한다.

1991년 결선에서 백혜선은 로날드 졸만(Ronald Zollman)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파트리스 샬로로의 <비탄의 도시로>를 연주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화려한 기교와 동시에 깊은 음악적 이해가 요구되는 곡으로, 특히 오케스트라와의 완벽한 호흡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곡이다. 당시 벨기에 현지 언론들은 백혜선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클래식계에 세계 무대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자,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에는 한국 클래식계와의 첫 번째 본격적인 만남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수상은 바이올린 부문에서 임지영(2015년)과 최하영(2022년)이 우승했고, 성악 부문에서는 홍혜란(2011년), 황수미(2014년), 김태한(2023년)이 우승한 바 있다. 백혜선의 4위 입상은 2016년 한지호의 4위 입상과 함께 현재까지도 한국 피아니스트의 최고 성과로 남아있다. 특히 2025년 본선에는 13명의 한국 피아니스트가 진출하여 큰 기대를 모았으나 아무도 결선에 오르지 못해 큰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 공연에 익숙한 예술감독 안토니 헤르무스

Belgian National Orchestra 역대 상임 지휘자		
1958년 - 1967년	앙드레 클뤼탕스(André Cluytens) ●	벨기에-프랑스
1969년 - 1971년	미하엘 길렌(Michael Gielen)	독일-오스트리아
1974년 - 1985년	앙드레 반데르누트(André Vandernoot)	벨기에
1985년 - 1989년	조르주 옥토르스(Georges Octors)	벨기에
1983년 - 1989년(공동 상임)	멘디 로단(Mendi Rodan)	루마니아-이스라엘
1989년 - 1993년	로날드 졸만(Ronald Zollman)	벨기에
1994년 - 2002년	유리 시모노프(Yuri Simonov)	러시아
2002년 - 2007년	미코 프랑크(Mikko Franck)	핀란드
2007년 - 2012년	발터 벨러(Walter Weller)	오스트리아
2012년 - 2017년	안드레이 보레이코(Andrey Boreyko)	러시아
2017년 - 2022년	휴 울프(Hugh Wolff)	프랑스-미국
2022년 - 현재	안토니 헤르무스(Antony Hermus)	네덜란드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를 예술적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건 무엇보다 뛰어난 마에스트로들과의 작업 덕분이었다. 벨기에 앤트워프 출신의 앙드레 클뤼탕스(André Cluytens)는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명지휘자로, 1958년 음악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부임했다. 클뤼탕스 이전에도 칼 뵘(Karl Böhm), 에리히 클라이버(Erich Kleiber), 피에르 몽퇴(Pierre Monteux) 등 거장 지휘자들이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음악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그의 지휘 아래 국제적 수준의 앙상블로 성장했으며, 진정한 도약을 거듭했다고 평가받는다. 각 지휘자의 독특한 음악적 비전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전통이 만나면서, 매번 새로운 해석과 감동이 탄생하고 있다.



현재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안토니 헤르무스(Antony Hermus)는 네덜란드가 배출한 최고의 지휘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극적인 감각과 음악의 흐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명확한 해석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한국과 꽤 깊은 인연을 가진 지휘자라는 것이다. 이미 그는 한국 작곡가 진은숙의 작품을 연주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 방문이 네 번째다. 2016년, 2018년, 2019년 방한해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드디어 2025년 그의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

기다려온 K클래식과의 새로운 인연

“2014년부터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수상자들이 쏟아졌다. 한국 클래식 음악에 이전과 또 다른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2022년 다큐 영화 <케이클래식 제너레이션>을 연출한 벨기에 공영방송(RTB) 음악감독인 티에리 로로는 한국 클래식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그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번 9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 또한 그 변화에 박차를 가해줄 것이라 기대된다. 8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브람스의 <교향곡 1번>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고전과 낭만파의 대표작들로,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전통적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레퍼토리다. 연주 기법과 해석 면에서 한국 음악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백혜선과의 협연으로 펼쳐질 베토벤 협주곡은 동서양 음악가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한국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유럽 클래식 음악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고전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세계 음악계에 기여해 왔으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통한 차세대 음악가 발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한국 공연은 이러한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 한국 클래식계의 만남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백혜선과의 협연을 통해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가 있다. 부디 이번 한국 공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문화 교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두 나라의 음악적 전통이 만나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하모니를 만들고, 이를 양국 모두의 귀중한 음악적 자산으로 삼길 기대해 본다.

●
양드레 클뤼탕스 사진
@네덜란드 국립기록보관소 Anefo.

좌절을 넘어 다시, 행복의 한가운데로

백혜선 피아니스트

현존하는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이자 차이콥스키 콩쿠르 한국인 최초 수상까지, 대한민국 1세대 여성 피아니스트로서 빼곡한 성취를 얻은 그는 여전히 스스로가 도전과 좌절의 연속에 서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좌절 또한 꿈꾸는 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번 9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다시 한번 뜻깊은 만남을 앞두고 있는 백혜선 피아니스트를 만났다.

글. 박채림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Q. 지난 6월 피아노 리사이틀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셨지요. 최근의 근황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은 시카고와 뉴욕 북부를 오가며 지냈어요. 지역의 여러 음악제에서 연주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뉴욕 맨해튼에 있는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식도 맞물려 있어 이를 기념하는 음악회를 준비하느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은 미국 동부 지역 한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큼니다. 기념 음악회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김택수 작곡가의 칸타타 <들풀(The Grass Still Grows)>이 세계 초연될 예정인데요. 뉴욕에서 첫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10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역사적인 음악회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벨기에 국립교향악단과 협업할 기회도 생겨 무척 설레는 마음입니다.



Q.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는 34년 만의 협연이라 더욱 의미가 크실 듯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런 귀한 기회를 만들어준 경기아트센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벨기에에서 만났던 국립교향악단과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199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에서 로너드 졸만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파트리스 샬로리의 <비탄의 도시로>를 협연했던 기억도, 파비올라 여왕을 뵈었던 장면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모든 국가 대사가 함께 참석한 시상식에서 한국 대표 대사님과 함께 상을 받았던 순간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벨기에 클래식 음악의 심장かと 같은 보자르의 상주 악단으로, 올해는 안토니 헤르무스의 지휘가 더해지며 다시 한번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협연에서 연주자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케스트라와의 완벽한 호흡 속에서 피아노가 처음 등장할 때의 웅장함 그리고 실내악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하모니를 만들고 싶습니다. 협연곡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선택했어요. 1악장은 위풍당당한 기세로 시작하며 2악장은 별빛 아래 정원을 거니는 듯 황홀하고 고요하지요. 3악장은 마치 무도회에 초대된 듯 즐겁고 경쾌한 춤을 추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베토벤 특유의 당당함과 고귀함이 어우러진 곡으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명곡이라 생각합니다.

Q. 정명훈 지휘로 런던 심포니를 만났을 때도, 뮌헨 필과의 협연에서도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셨어요. 이번 협연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가 선택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솔리스트가 직접 곡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스트라와의 협의를 통해 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온전히 저의 뜻대로 되지는 않지요. 다만 베토벤의 '황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청중이 사랑하는 곡입니다. 연주자로서 즐겨 연주하는 곡이기에 언제나 환영받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Q. 솔리스트로서 협연 무대와 독주 무대가 다르게 느껴질 듯합니다.

협연 무대에서는 마음대로 연주하고 싶어도 지휘자의 지휘 아래 모든 연주자가 조화를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주자의 자율성이 제한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늘 함께 연주하는 이들을 의식해야 하기에 신경 쓸 일도 많고요. 그만큼 섬세함과 정교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전체의 조화를 항상 신경 써야 하지만 그만큼 완벽한 호흡 속에서의 웅장함이 돋보이지요. 반면 독주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그만큼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요. 마치 발가벗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매번 다른 도전인 셈입니다.

Q. 2023년 출간하신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에서 ‘내 인생에 좌절이란 곧 특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연주자로서 여전히 좌절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연주하고 가르치고 도전하는 매 순간이 실망과 좌절 그리고 성취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꿈과 기대,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항상 부족한 자신과 마주해야 하지만 그런데도 용기를 내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혹할 만큼 말입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절망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해도 곤란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며 자기 자신을 잘 다루는 법을 아는 일입니다.

Q. 한국 음악계에서 여성 피아니스트 1세대로 살아가는 일 또한 도전의 연속이었겠지요.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음악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돌아보면 과거에는 여성이자 동양인이라는 사실이 불리하면서도 때로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동양인 연주자들에 비해 신체적으로나 소리 면에서 덜 연약했기에 오히려 주목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새삼 ‘K-Classic’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요즈음이 놀랍기만 합니다.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해주고 있으니깐요. 이제는 실력뿐만 아니라 음악을 진정으로 배우고 헌신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Q.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 학생에게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좋은 선생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갖춰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프’ 만드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해 볼까요?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고, 가끔 좋은 맛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수프를 만드는 일은 어디까지나 학생 본인의 몫입니다. 같은 재료로 배워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맛이 모두 다르듯, 음악도 마찬가지지요. 지식이 많을수록 더욱 잘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고, 문법을 잘 알아야 상상력과 생명력이 음악을 살립니다. 악보에 있는 그대로 연주하거나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좋은 연주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Q. 그렇다면 무대와 학교 밖에서 가장 몰입하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현재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기념관 대표이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독립운동기념관은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식으로 문을 열고 뉴욕 지역사회와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계획입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음악회가 열리는 맨해튼 타운홀은 1921년 3월 2일, 1,300여 명의 한인이 모여 영어로 번역한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만세운동을 시작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뉴욕 한인교회를 거쳐 간 한국 대표 음악가들의 연주를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음악을 통해 광복 80주년의 감동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Q. 연주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오래 기다려온 연주 기회가 성사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설 때가 가장 기쁩니다. 이번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역시 무척이나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Q. 수없는 도전을 일궜은 지금, 꼭 이루고 싶은 ‘다음 꿈’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제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STAGE

PREVIEW

- ①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이 필요 없는 무대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
- ② 떠오르는 두 셋별,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만나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 ③ 정통 재즈 빅밴드와 떠나는, 흥겨운 음악 여행
DMZ 재즈 오케스트라의 <스윙 앤 핑키>

REVIEW

- ① 동시대-국악의 뜻과 가능성이 '전달'된 순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MESSENGER>
- ② 잊혀진 악장으로 시작된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II <여행>
- ③ '경기도'를 딛고 떠났던 먼 여정과 남은 바람들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낭독극>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이 필요 없는 무대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

9월의 깊어가는 정취 아래 브람스의 명곡들이 울려 퍼진다. 이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는 깊고 묵직하면서도 섬세한 브람스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김선옥 예술감독의 세련된 지휘 아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첼리스트 지안 왕이 함께하며 더 큰 울림의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Il Hoon Son, Fairfare, Commissioned by GPO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8단조, 작품 102
J. Brahms, Double Concerto for Violin and Cello
in a minor, Op. 102
브람스 교향곡 4번 e단조, 작품 98
J. Brahms, 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
BRAHMS
김선옥 예술감독
지휘 | 지안 왕
첼로 | 지안 왕

티켓
서울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C석 2만원
수원 R석 7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전북지방 교통카드 사용 시 5% 할인(카드사별 할인율 별도)
문의 1. Interpark 티켓 수선 1544-2344 서울 1544-1555
롯데콘서트홀 1544-7744
문의 031-230-3314

2025. 9. 18(목) 7:30PM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9. 19(금) 7:30PM
롯데콘서트홀

PREVIEW

1

BRAHMS

IN

THE

FALL

애절하고, 서정적인때로 격정적인 명곡들의 향연

이번 공연은 손일훈 작곡가의 <팡파레>로 막을 연다. 경기필의 위촉으로 초연되는 이 작품은 전통적인 팡파레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이다. 화려하고 힘찬 관악기의 선율이 웅장하게 울리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음악적 가교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개막곡을 넘어, 클래식 음악이, 그리고 경기필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미래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다.

이어지는 1부의 무대는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이다. 1887년에 완성된 이 곡은 브람스의 마지막 관현악 작품이자, 진한 우정과 화합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브람스는 원래 이 곡을 다섯 번째 교향곡으로 구상했으나, 오랜 친구인 바이올리니스트 요아힘에게 조연을 구하는 과정에서 협주곡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바이올린과 첼로 두 악기의 아름다운 조화와 오케스트라와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곡이지만, 두 독주자의 연주력과 표현의 풍부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곡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탁월한 음악성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사랑받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첼리스트 지안 왕이 함께 할 협연이 더욱 기대된다. 두 연주자는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경기필과의 완벽한 앙상블을 통해 브람스가 의도한 서정성과 화합의 미학을 풍부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2부를 장식하는 <교향곡 4번 e단조, 작품 98>은 브람스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치밀하고 철학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1885년에 완성된 이 교향곡은 브람스가 50대에 이르러 완성한 원숙한 걸작으로, 고전적 형식미와 낭만적 감정이 정교하게 결합해 있다. 특히 4악장의 파사칼리아는 바흐의 샤콘에서 영감을 받은 변주 형식으로, 하나의 주제가 30번의 변주를 거치며 점층적으로 발전해 가는 압도적인 구성미를 자랑한다. 김선욱의 지휘 아래 경기필이 들려줄 이 곡은 고전과 낭만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첼리스트 지안 왕,
두 연주자는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경기필과의 완벽한 앙상블을 통해
브람스가 의도한 서정성과 화합의 미학을
풍부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BRAHMS

IN

THE

FALL



김선욱, 클라라 주미 강, 지안 왕

세계적 거장들의 완벽한 하모니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번 공연에 브람스 연주를 위한 최고의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사실이다. 지휘자 김선욱은 2006년 18세의 나이로 리즈 콩쿠르 4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이자 첫 아시아 출신 우승자라는 기록을 남기며 국제 음악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피아니스트로서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등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해 온 그는 연주자로서뿐 아니라, 현재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으로서 지휘자의 길도 활발히 걸어가고 있다. 그의 음악적 해석은 깊이 있는 성찰과 세련된 감각을 동시에 보여주며, 작품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은 인디애나폴리스, 샌다이, 서울 등 주요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실력파다. 독일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세 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그녀는 뛰어난 기교와 음악적 해석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김선욱과 함께 녹음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음반은 2021년 발매되어 큰 호평을 받았으며, 두 연주자 간의 완벽한 호흡을 확인할 수 있다.

첼리스트 지안 왕은 런던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다. 정명훈, 구스타보 두다멜, 다니엘 하딩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으며,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에서 발매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과 브람스 이중협주곡 음반은 그의 뛰어난 음악성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9월 18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과 19일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질 이번 공연은 시대를 초월한 작품들과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어우러져, 음악이 지닌 울림과 여운을 깊이 있게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

일시 9월 18일(목) 19:30 / 9월 19일(금) 19:3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롯데콘서트홀
 금액 장소별 상이
 문의 031-230-3314

QUEEN ELISABETH COMPETITION WINNERS CONCERT



떠오르는
두 샛별,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만나다

PREVIEW ②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2025년, 세계 3대 국제 피아노 콩쿠르로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했다. 단번에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한 1위 우승자 니콜라 미우센(네덜란드)과 2위 수상자 와타루 히사스에(일본), 이 두 젊은 피아니스트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국내 투어의 피날레 무대를 선사한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다른 해석, 다른 색깔

두 주역의 스타일이 어우러지는 무대

매년 5월 전 세계 클래식계와 클래식 애호가들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주목한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1937년 벨기에 왕비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따서 시작된 이래, 클래식 음악계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개최 순서는 바이올린-피아노-첼로-성악의 순서이며, 피아노 부문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었다.

그렇기에 그 영예의 주인공이 된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는 수상자들의 연주회이기 이전에, 클래식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들을 만나보는 자리인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 니콜라 미우센과 와타루 히사스에는 각각 다른 음악적 배경과 해석을 바탕으로, 바로크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연주자 모두 전통적인 레퍼토리와 현대적 감각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니콜라 미우센은 쇼스타코비치라는 20세기 거장의 작품을 통해 현대적 해석력을, 와타루 히사스에는 뒤사팽이라는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으로 현대음악의 생명력을 전달한다. 동시에 두 연주자 모두 베토벤, 멘델스존 등 고전-낭만파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통해 깊이 있는 전통 해석을 보여줄 예정이다.

완벽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해석, 우승자 니콜라 미우센

니콜라 미우센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최연소 우승이자 네덜란드인 최초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9세에 스타인웨이 콩쿠르, 12세에 콘세르트헤바우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미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멘델스존의 <진지한 변주곡>을 비롯해 프로코피예프의 <악마의 암시>,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소나타 2번> 등을 연주한다. 특히 <진지한 변주곡>은 D단조의 주제와 17개의 변주로 이루어진 대작으로, 베토벤의 변주곡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낭만주의적 감수성을 융합한 걸작이다. 이 곡을 통해 니콜라 미우센은 고전적 형식미와 낭만적 표현력을 동시에 보여줄 예정이다.



Nikola Meeuwsen

현대적 감각과 전통의 조화, 준우승자 와타루 히사스에

2위를 수상한 와타루 히사스에는 일본 출신의 실력파 피아니스트로, 2015년 리옹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를 비롯해 최근 ADR 콩쿠르 3위, 2024년 게자 안다 콩쿠르 특별상 등 여러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정제된 기교와 깊이 있는 서정성이 어우러진 연주로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라벨의 <고귀하고 감성적인 왈츠>, 뒤사팽의 <피아노를 위한 연습곡 2번 이그라> 등을 연주하며, 20·21세기 현대 음악에 깊은 조예를 지닌 그의 감각을 빛낼 것이다.

젊은 거장들의 특별한 피날레 무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들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이러한 미래의 거장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기회이자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라면 놓칠 수 없는 이 특별한 무대에서, 두 젊은 피아니스트가 들려줄 음악의 대화를 한껏 기대해보자.

Wataru Hisasue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일시 9월 25일(목) 19:3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금액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정통 재즈 빅밴드와 떠나는,

흥겨운 음악 여행

DMZ 재즈 오케스트라의 <스윙 앤 펑키>

하루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지는 재즈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9월 28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는 DMZ 재즈 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스윙 앤 펑키> 콘서트가 열린다. 국내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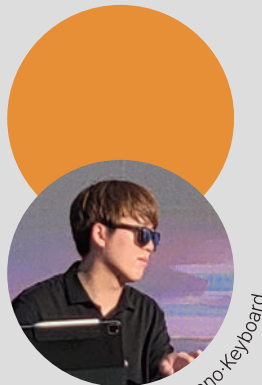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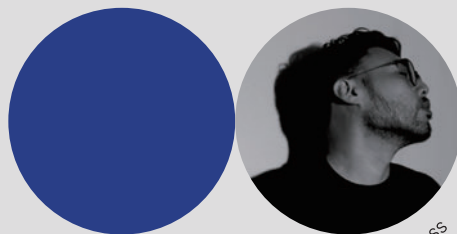
김병열 | 음악감독 Alto Saxophone



이대남 | Baritone Saxoph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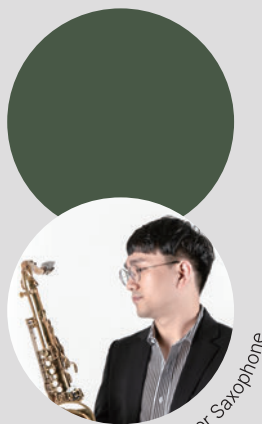
최다빈 | Piano/Keyboard



황인규 | Bass



조규원 | Drums



손민 | Tenor Saxophone

PREVIEW ③

SWING

&

FUNKY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DMZ 재즈 오케스트라는 파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 참여형 오케스트라로, 1930년대 재즈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정통 재즈를 표방한다. 파주가 DMZ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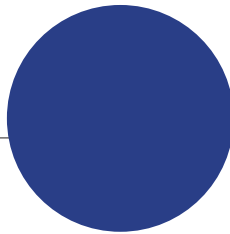
이번 공연의 제목인 '스윙 앤 핑키'는 매력적인 두 재즈 스타일의 조합을 의미한다. '스윙'은 1920~40년대를 풍미한 빅밴드 편성의 재즈 스타일로, 재즈가 연주될 때 흥을 유발하는 특유의 음악적 요소다. 4/4박자에서 짝수 박자에 약간의 강세를 주어 흔들리는 듯한 특유의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스윙 리듬은 재즈만의 독특한 흥과 율동감을 자아낸다. '핑키 재즈'는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장르로, 소울 음악과 펑크 음악의 요소가 결합한 리드미컬하고 그루브 넘치는 음악이 특징이다. 강렬한 리듬과 소울풀한 보컬 등이 인상적이다. 이 두 스타일의 만남은 관객들에게 클래식한 재즈의 세련미와 현대적 감각의 그루브를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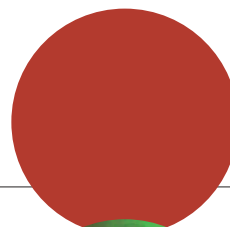
장영준 | Trumpet



유동완 | Trombone



이수경 | Vocal



최용석 | 사회자·총감독



메이크유 댄스 캠페인



조셉 코스마(Joseph Kosma)의 <어텀 리브즈(Autumn Leaves)>부터 지미 쥐프리(Jimmy Giuffre)의 <포 브라더스(Four Brothers)>, 척 맨지오니(Chuck Mangione)의 <필 소 굿(Feels So Good)>,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의 <잇 돈 트 민 어 땡(It Don't Mean A Thing)> 등 발라드부터 스윙, 핑키, 재즈 팝까지 다양한 곡들이 어우러져 풍성한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김병열(알토 색소폰)을 비롯해 최다빈(피아노/키보드), 황인규(베이스), 조규원(드럼), 손민(테너 색소폰), 이대남(바리톤 색소폰), 장영준(트럼펫), 유동완(트롬본), 이수경(보컬) 등 국내 재즈계의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최용석 총감독은 한국영상대 실용음악과 외래교수와 (사)한국재즈협회 초대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파주 DMZ오케스트라(DMZ 재즈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전체 음악 단체)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재즈계의 중요한 인물이다. DMZ 재즈 오케스트라의 <스윙 앤 핑키>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가들의 진정성 있는 무대다. 동시에 풍요롭고 수준 높은 재즈 감상의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펼쳐질 이 감동적인 재즈 여행에 함께해보자.

DMZ 재즈 오케스트라의 <스윙 앤 핑키>

일시 9월 28일(일) 15:0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금액 R석 5.5만 원, S석 4.4만 원, A석 3.3만 원



동시대- 국악의 뜻과 가능성이

'전달'된 순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MESSENGER>

'국악관현악이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는가?'라는 물음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선보인 공연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MESSENGER>는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답변이었다. 작년 1월에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김성진 지휘자의 존재감과 선곡력을 전면에 내건 이번 공연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구축해 온 실력과 한데 어우러지며 국악관현악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이번 공연은 국악관현악계에서 검증된 김성기, 이정호의 기존 작품을 선보였고, 이에진, 김영상, 모세 베트르란에게 위촉한 3곡을 처음 선보인 시간(초연)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이고, 후자는 '마에스트로가 사랑'할 '국악'이기도 했다.

글. 송현민(음악평론가, 월간 <객석> 편집장)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REVIEW

①

시각과 청각의 조응 속에서

첫 번째 곡 <깊은 밤>은 황병기 가야금 작품의 정서를 관현악으로 확장한 '황병기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으로, 작곡가 이예진의 신작이다. 주로 독주곡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단아함과 정적인 미학을 구현했던 황병기 특유의 '음향적 주제'가 국악관현악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되었다.

작곡가는 가야금의 발전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국악기군(국악기 그룹)이 구현해내도록 정확한 음향의 설계도를 그렸다. 이러한 설계도를 놓고 김성진의 지휘는 공간과 여백, 소리의 층위와 구조를 잘 드러냈다.

<깊은 밤>과 동시에 시작된 영상(화면)은 무대와 소리를 단숨에 장악하며 관객을 회화의 환상 속으로 끌어들었다. 동양화가 방의걸의 작품이 곡마다 무대 뒤 영상으로 펼쳐졌는데, 이는 무대를 채우는 단순한 배경화가 아니라 공연의 정서와 방향을 이끄는 상징적 장치와도 같았다.

김성진의 지휘는 단순히 '연주를 조율하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시각예술과의 조응을 염두에 둔 구조적 설계였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먹의 농담과 붓질의 결은 음악의 리듬과 음색 변화에 조응했고, 김성진은 시각적 정조를 음악적으로 치밀하게 구현하며 회화적 분위기와 음악의 흐름을 절묘하게 교직시켰다. 김성진은 각 곡의 호흡과 감정의 분출이 수목화와 어떤 방식으로 엮일지를 철저히 고민한 것 같았고, 이를 악단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일관된 무대 분위기를 이끌었다. 청중은 음악을 '듣는 동시에 바라보는' 복합적 예술 경험을 누릴 수 있었다.

국악관현악으로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경기민요에 대한 애착은 다른 악단보다 집요하고 남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민요가 흐르던 음악적 토지 위에 세워진 현대식 악단이기 때문이기에 경기음악에 끊임없이 탐침(探針)을 밀어 넣어 옛 음악을 지금의 음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해나가야 하는 강령과 의무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12잡가를 모티브로 하여 12명의 젊은 작곡가들의 12곡 작품을 선보였던 <十二작곡가>(2024.10.24) 공연은 작년에 취임한 김성진의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했다.

애착과 집착은 이번 공연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김영상의 위촉 초연곡 <나래>는 경기민요의 선율과 정서를 새롭게 선보인 작품이었다. 작곡가는 5곡의 경기민요(청춘가·태평가·노랫가락·벚노래·자진벚노래)가 갖는 각기 다른 정조와 리듬을 관현악의 일



관된 흐름으로 조직했고, 김성진의 지휘는 노래와 악기들이 품은 감정의 점층을 따라가듯 긴장과 해방을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의 정교함을 드러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노래들을 앙상블의 '호흡'으로 잘 엮으며 정련된 연주를 보여주었다.

김영상의 <나래>가 경기 지역에 흐르는 '경기민요'의 수맥(水脈)을 관현악으로 짚어본 것이었다면, 이어진 세 번째 곡 <미제레레>는 '첼로'와의 만남을 통해, 네 번째 곡 해금 협주곡 <영성의 실>은 '모세 베르트란'이라는 외국 작곡가를 통해 관현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광맥(鑛脈)을 들여다본 순간이었다. '지역성'(경기)과 '국제성'(세계)을 아우르는 범위는 김성진 지휘자만의 정체성이기도 한데, 이는 비단 그가 뉴욕시립대학원에서 유학했다는 '경력'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해외 유학을 통해 국제적 감각의 지휘 공부를 한 지휘자들도 국내 안착 후에는 전력(前歷)을 상실한 채 내수용 기획과 프로젝트에 골몰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성진은 첼로·파이프오르간·클래식 기타 등의 서양악기와 만나는 교두보에서 다양한 위촉과 연주의 실험들을 행하고 있다.

단원들의 소리가 하나가 되며

김성기의 첼로 협주곡 <미제레레>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을 가진 이 곡은 2004년 김성진이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시절 위촉했던 작품으로 오랜만에 그의 지휘로 만나볼 수 있었다.

가끔씩 이 곡을 만날 때마다 집중했던 것은 첼리스트의 존재와 연주였다. 물론 첼로 협주곡이라는 원래의 생리를 저버릴 순 없지만, 이번 공연에서 빛을 발한 것은 악단의 '존재감'이었다. 거의 20분에 달하는 분량의 곡을 절반으로 뚝 잘라보았을 때 전 반부는 첼로가 느슨한 고백체의 어법으로 이야기하기에 악단의 연주가 정밀하지 않으면 몰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이번 연주를 통해서였다. 후반부로 넘어가 첼로가 일으키는 감정적 폭발에도 김성진은 점진적인 호흡으로 차분히 악단을 이끌었고, 문태국의 첼로와 악단이 함께 감정의 곡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명료한 텍스처를 제시했다. 성공적인 연주는 '다음'을 기대하고 기억하게 한다. 이른바 K-클래식의 전성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서양악기 연주자들에게 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과 기회는 그들이 한국인이기에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과 특권을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서양악기 협주곡들이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를 통해 보다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서양 작곡가가 국악관현악 협주곡을 쓴다는 것 자체는 특별한 시도다. 스페인 출신으로 콜롬비아 국립음악원 작곡과 교수인 모세 베르트란은 경기 지역의 무속 리듬, 아리랑의 모티프, 국악기의 음향적 질감 등을 놀라운 세밀함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서양 협주곡의 문법 안에서 설계했다. 그간 해금·대금·가야금 등을 위한 실내악 창작곡으로 점진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던 그가 한국음악계의 중심부로 들어올 날을 기대했는데, 이날 공연에서 위촉초연된 해금 협주곡 <영성의 실>로 그 성과가 나온 것 같았다. 따라서 이날 연주는 해금(강은일)의 '현'으로, 악단원들을 연결하는 소리의 '선'이 하나가 되어 그를 한국음악계의 중심부로 견인한 순간이었다. 앞으로 모세 베르트란의 또 다른 협주곡이 기대되었다.

음악의 의미와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공연의 마지막은 이정호의 <폭포수 아래>였다. 전통음악 <수룡음>의 선율을 정가와 관현악으로 확장한 이 작품은 제목과 같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생명과 기운의 음악이다. 김성진은 이 곡에서 단순히 정가와 관현악의 병치를 넘어서, 정가의 음



색이 관현악 안에 녹아들도록 디테일한 설계를 펼쳤고, 김대운(정가)은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방의걸 화백의 영상과 어우러질 때 이는 더욱 압도적인 감각적 풍경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도 김성진은 폭포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음악으로 구현하는데 있어, 그는 리듬의 파열과 음향의 고조를 조율하면서도 결코 과도한 드라마를 경계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그 균형을 놓치지 않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가의 음색과 조화를 이루며 공연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브랜드 시리즈로 잘 안착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휘자의 존재와 노력은 이 시리즈를 여닫는 열쇠이자, 시리즈를 이끌어갈 엔진과도 같다. 이번 공연에 붙은 제목은 <Messenger(메신저)>. 김성진은 이번 공연에서 단순히 지휘자의 역할을 넘어 작곡가-악단-회화 예술을 엮는 매개자였으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내건 비전을 보다 선명하게 구현한 또 다른 매개자이자 메신저였다.

송현민

음악평론가, 월간 <객석> 편집장. '한반도의 르네상스'를 주장했던 음악평론가 박용구론으로 제13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했고, 충실한 '기록'이 미래를 '기획'하는 자료가 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잊혀진
악장으로

시작된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II
<여행>

② REVIEW

말러에게는 '아픈 손가락'인 <블루미네>. 하지만 김선욱에게는 아프지 않고 '튼실한 손가락'이었다. 5월 2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경기필하모닉 2025 마스터즈 시리즈 III <여행>은 <블루미네(꽃의 악장)>로 시작을 알렸다.

글. 유혁준(음악칼럼니스트, 클라라하우스 대표)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말러의 '아픈 손가락'이 전하는 달콤한 유혹

구스타프 말러의 <블루미네>. 애초에 이 달콤한 세레나데는 거대한 교향곡과 궁합이 맞지 않았다. 평론가들의 혹평 속에 1889년 부다페스트 초연, 그리고 함부르크, 바이마르 공연까지 만 이 악장은 교향곡 1번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잊혀졌다.

그러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의 김선욱은 이 말러의 '아픈 손가락'을 오히려 사랑스럽고 인상적인 서곡으로 연출했다. 현악기의 섬세한 트레몰로를 타고 트럼펫의 주제 선율이 유혹하듯 살랑거리며 객석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원곡이 <제킹엔의 나팔수>가 아니었던가. 나팔 소리는 세레나데가 되어 여름으로 향하는 늦은 저녁 시간에 안성맞춤이 되어 귀를 간지럽게 했다. 꽃망울이 터지는 것 같은 하프의 활약이 인상적이었고, 중간부 오보에의 음률은 관능적이기까지 했다. 이제 서곡, 협주곡, 교향곡으로 구성된 교향악단 콘서트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다. 청중은 <블루미네>를 감상하며 마치 흡족한 애피타이저를 맛본 것 같은 악흥(樂興)을 느꼈으리라.

아미하이 그로스가 완성도를 더한 신동훈의 비올라 협주곡

베를린 필하모닉 비올라 수석 아미하이 그로스는 최정상급 스타 연주자다. 그의 명성은 이미 오래전 예루살렘 사중주단의 창단 멤버로 활동할 때부터 솔한 음반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그로스는 베를린 필하모니홀에서 베를린필과 우리 작곡가 신동훈의 비올라 협주곡을 초연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 작곡상을 수상한 신동훈은 현재 스승 진은숙과 함께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에서 작품을 위촉하는 걸출한 젊은 작곡가다. 베를린필뿐 아니라 경기필에서도 공동으로 위촉한 비올라 협주곡의 아시아 초연은 음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흑회색 황량함 위에 내린

나무만큼

고매한 사상 하나

빛 소리를 잡을 손을 뻗으니, 아직

부를 노래들이 있어라.”

파울 첼란의 <죽음의 푸가>는 신동훈에 의해 <실날 태양들> 타이틀을 달고 음악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아미하이 그로스가 작곡가의 조국에서 연주하는 태양들은 황량한 먹구름을 뚫고 실날같은 빛을 투사하며 나무에 닿았다. 신동훈이 말러 교향곡 9번을 듣고 작곡가가 되기로 했었던가. 말러의 D플랫장조는 신

동훈의 D플랫장조와 같았지만 내내 가라앉아 있지만은 않았다. 비올라의 낮은 음역은 눈물을 안으로 삼키기도 했지만 순간 순간 희망의 빛을 동시에 발산했다.

신작 초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법하지만, 경기필은 걸출한 독주자를 만나 현대음악의 순탄치 않은 길을 한 땀 한 땀 헤쳐갔다. 피아노와 첼레스타를 정신없이 오가며 곡의 완성도에 일조한 피아니스트 김재원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2악장으로 가는 왈츠의 리듬감도 좋았다. D플랫장조에서 벗어나 A장조로 들어가는 재현부는 부풀어 오르며 절정을 구가했다. '코다'의 사그라드는 반전은 음향적인 쾌감도 불러일으켰다.

멘델스존의 진가를 품은 <스코틀랜드> 교향곡

우리에게 멘델스존은 작곡가 가운데 가장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고이 자란 '금수저이자 귀하신 몸'이다. 솜사탕같이 아름다운 선율과 상쾌한 느낌의 음악, <결혼 행진곡>으로 대표되는 작품들도 깊이가 없이 가볍고 평면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이는 본고장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그너를 필두로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 유태인 멘델스존은 처참히 짓밟혔다. 멘델스존협회도 1997년에야 만들어졌다. 심지어 그의 교회음악조차도 바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과연 그럴까?

1840년 4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4대 카펠마이스터였던 멘델스존은 작센 왕국의 재정 담당 고위 관리에게 청원서를 보냈다. 라이프치히에 음악학교를 설립하기 위함이였다. 결국 아우구스트 2세는 학교 부지를 고르도록 허가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음악감독의 의무는 아니었지만, 도덕적인 책임감이 강한 멘델스존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사회적인 이익을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 정의롭고 강직한 성품은 시립 단체로 오케스트라가 인정받도록 투쟁했으며, 단원들의 급여 인상을 요청했다. 1837년 <Historical Concerts>라 명명된 사이클 공연을 시작하며 어떠한 지휘자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콘서트 프로그램을 도입한 멘델스존. 당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유럽 최정상 악단이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은 이러한 배경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멘델스존은 모차르트, 베토벤과 동급으로 강력하고 때로 광기가 수반된 폭풍이 몰아쳐야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온다. 모차르트도 그랬고 당시 유럽 사회에서 여행은 인문학적 소양을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4번 <이탈리아> 교향곡과 함께 <스코틀랜드> 교향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한 여행의 결과물이었다.



무대를 가득 채웠던 연주력과 열정

“질게 깔린 황혼 무렵 우리는 오늘 왕궁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메리 여왕이 살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썩고 있지만 맑은 하늘에서 빛이 쏟아집니다. 그곳에서 내 <스코틀랜드> 교향곡의 시작을 찾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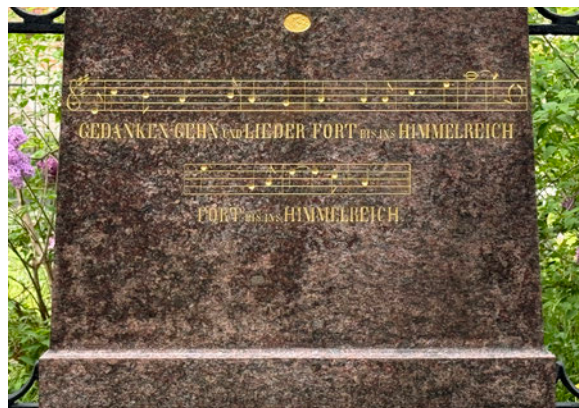
에든버러 홀리루드 성을 처음 찾았던 멘델스존의 감회는 1악장 강렬한 서주를 푸는 열쇠와도 같다. 김선옥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경기필드 긴장하는 기색이 보였다. 하지만 바이올린의 운궁에 이어, 33마디에 등장하는 첼로 파트의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2회의 약진을 발판으로 되돌아온 목금관은 안정감을 찾으며 서늘한 옛 성의 적막함이 반추되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은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 1주제의 느낌이 그랬다. 클라리넷이 노래하는 2주제와 현악기의 조화, 그리고 숏구치는 전향주는 추가된 부주제에서 숨을 골랐다. 김선옥은 특히 음색 다듬기에 정성을 기울인 모습이다. 재현부 직전 약 30초 동안 이어진 저현악기의 경과구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클라이맥스의 미친 듯한 광기는 ‘코다’에서 재등장한 서주부의 처연함과 극적인 대비를 이뤘다.

스코틀랜드 민요를 그대로 옮겨온 2악장의 ‘스카치 스냅’으로 일컬어지는 싱코페이션의 리듬감은 드높다. 조성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F장조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까. 경기필드는 밝고 또 밝았다. 스타카토로 지저귀는 2주제도 그 연장선 상에 있었다. 3악장의 조성은 D단조다. 기본적으로 쓸쓸하고 로맨틱해야 하지만 이면에 비장함이 깃들어야 한다. 경기필드의 ‘칸타빌레’는 노래는 잘했으되, 머금은 눈물의 양은 적었다. 2주제, 클라리넷, 바순, 호른에서 시작되어 악기 전체로 퍼지는 붓점 리듬은 탁월했다. 재현부, 첼로, 호른과 다른 악기의 하모니는 이날 공연의 백미라 할 만했다.

4악장 1주제의 현악기의 번득이는 숏구침과 2주제의 오보에, 클라리넷의 이중주는 힘차게 진군하며, 이제 무르익어가는 김선옥과 경기필드의 합작품으로 다가왔다. 드디어 코다! 베를리오즈보다 먼저 ‘순환구조’를 익힌 멘델스존의 천재(天才)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명장면이다. 김선옥의 지휘봉은 ‘남성 합창을 위한 승리의 찬가’를 가져온 코다의 주재료와 서주부 선율을 적시 적소에 섞어가며 4개 악장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리고 객석은 환호했다.

기술적으로 베를린필에 밀리는 경기필드는 대신 베를린필이 가지 못한 뜨거운 열정과 부단한 리하설로 극복한 느낌이다. 비올라 협주곡을 협연한 그로스도 그렇게 느꼈을 터다. 공연 타이틀 ‘여행’의 의미에 대해 김선옥은 “멘델스존 교향곡 부제가 <스코틀랜드>이고, 신동훈의 신작과 말러의 묻혀있던 <블루미네>까지 익숙하지 않은 곡들로 구성되었으니까요.”라고 말해 공간적 여행과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여행을 모두 담았음을 깨닫게 했다.

베를린 삼위일체 묘지에는 멘델스존 오른편에 누나 파니가 나란히 잠들어 있다. 음악적 멘토이자 그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파니. 파니의 묘비에는 아이헨도르프의 시 ‘여행의 노래 (Reise-Lied)’에서 작곡한 <산의 욕망>의 마지막 가사 ‘생각과 노래는 천국으로 날아온다(Gedanken gehn und Lieder fort bis ins Himmelreich)’가 악보와 함께 음각되어 있었다. 경기필드 공연이 끝나고 오는 길에 이 노래가 문득 떠올랐다.



베를린 삼위일체묘지 파니 멘델스존 묘비. 아이헨도르프의 시 「여행의 노래」에서 가사를 가져온 가곡 <들판과 너도밤나무숲을 지나>의 마지막 가사가 음각되어 있다(출처: 유혁준 칼럼니스트 제공).

유혁준

음악칼럼니스트이자 클래식 음악 콘텐츠 기획자이며, 클라라하우스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창작자 지원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를 닫고 떠났던 먼 여정과 남은 바람들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낭독극>

2025년 <창작희곡의 발견-낭독극>은 연극의 시공간적 다층성을 통해 '경기도'라는 지역적 모티프가 어떠한 서사적 확장성을 가지는지 보여주었다. 2025년 초여름의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이 일순간에, 경기 남부의 몇몇 학교 급식실이라는 공간적 조건을 넘나드는 동시대 급식노동자의 현실과, 수원 화령전에 쌓여있는 두터운 시간적 더께를 관통하는 나혜석의 삶을 품어낸 것이다. 2024년 경기도 창작희곡 공모의 두 당선작, <버닝: 타오르는 삶>과 <세 개의 화령전 작약>이다.

글. 전영지(공연 칼럼니스트)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극장은 시계도 지도도 없는 곳이다. 스마트 위치를 확인하며 지도 앱의 안내에 따라 공연 시간에 맞춰 극장 로비에 무사히 도착한다고 해도, 일단 극장 안으로 들어서면 이내 길을 잃고 만다. 막이 오르면 단일한 시공(時空)의 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곳은 분명 2025년 오늘의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이며 그 사실은 관객의 머릿속에서 단 한 순간도 희미해지지 않지만, '지금 여기'는 이내 서로 다른 시공간(들)과 포개진다. 지금 이곳이자 그때 그곳, 현실이자 환영. 연극의 시공간은 언제나 이렇듯 이중적 차원에 걸쳐있다.

기실 이와 같은 '이중성'은 연극이라는 예술 형식의 내재적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며, 다양한 미학적 실천의 디딤돌이 되곤 했다. 다양한 시공간을 넘나드는 대서사시가 아니더라도, 연극의 이중성을 경유할 때 이야기는 중첩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2024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를 테마로 진행한 '제4회 창작희곡 공모'에서 당선되어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낭독극으로 선보인 두 작품, 조은주 작가의 <버닝: 타오르는 삶>(연출 박혜선)과 황수아 작가의 <세 개의 화령전 작약>(연출 신재훈)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소개될 수 있다. 두 작품은 공히 연극의 시공

3
REVIEW



간적 다층성을 경유하여 서사의 모티브로서 '경기도'가 어떠한 확장성을 담보하는지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하여 나는 낭독극을 반추하며 '경기도'를 굳건히 닫고 있던 두 작품의 무대가 나를 얼마나 먼 곳까지 이끌었는지 적어볼까 한다. 더하여 두 작품 모두 2026년 본 공연이 예정된 바, 본 공연을 기다리는 마음 또한 짧게나마 남겨보고자 한다.

사려 깊고 위트 넘치는 급식 노동자 이야기:

<버닝: 타오르는 삶>

조은주 작가의 <버닝: 타오르는 삶>(이하 <버닝>)은 경기 남부에 서 각각 18년, 15년, 7년째 학교 급식조리사로 근무해 온 세 명의 50대 여성 노동자, 정혜·해숙·지연의 이야기다. 즉 <버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가진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를 범례 삼아, 전국 1만 5천여 개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고 있는 급식노동자의 일상을 환기하는 작품이다. '밥하는 아줌마'라고 폄하 당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심지어 조리흙(cooking fumes)으로 인한 폐암 등 각종 '구조적 산재'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아이들의 밥을 책임진다는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급식노동자들 말이다.

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 사례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 2018년 이고, 올해 4월 기준 산재 승인 건수가 175건에 달한다고 하니, 많은 이들에게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허나 <버닝>은 생생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건조한 신문 기사에는 쉽사리 담기지 않는 급식노동자들의 생생한 일상을 담아낸다. 매사 항의하기 바빠 정작 업무는 항상 내 차지로 만드는 '쌈닭' 동료를 둔 정혜, 여자가 하는 노동은 시답잖다고 여겨서인지 언제나 자기 본위인 남편(가족)이 버거운 해숙, 너무도 부당한 지시를 꼭 아주

촉박한 타이밍에 내리는 상사 때문에 미칠 지경인 지연. 이처럼 K-직장인이려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생의 피로가 오히려 각각의 인물을 생생하게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학교급식 노동자들만의 기이하게 불합리한 일상들이 추가되는데, 이를테면, 계란을 깨는 건 ‘전처리’고 뒤집는 건 ‘조리’라, 계란후라이 하나를 하려면 앞치마를 일일이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과 같이, 계란후라이 하나 부쳐본 적 없는 사람만이 고안해 낼 법한 ‘오피스 불합리’가 겹쳐지는 것이다.

<버닝>은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다. ‘꼼꼼한 리서치’나 ‘성실한 취재’라는 상투적 표현에는 채 담기지 않는 작가의 사려 깊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작품이 초지일관 견지하는 유머와 위트 또한 작가의 시간과 정성을 반영하는 듯 보인다. 허나 이야기 초반의 생동감은 중반 이후 현격히 줄어드는데, 이 또한 바로 작가의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싶다. 차마 자신의 등장인물들이 너무도 참혹한 결말을 맞게 할 수는 없었던, 현실의 급식노동자들에게 조금은 덜 지독한 결말의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 싶었던 작가의 선량한 마음 말이다. 허나 바로 이 마음 때문인지 이야기는 다소 낭만적으로 전개된다. 폐암 진단을 받은 해숙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자 정혜와 지연이 파업을 선언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데, 그 현장에 “세 사람이 여태껏 거쳐 왔던 모든 학교의 동료들이 함께한다”고, “영양교사와 몇 시간씩 싸우던 동료도 포함돼 있다”고 묘사되는 것처럼 말이다.

아, 정말이지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시위나 파업이 그리 쉽던가. 이런 자리일수록 진짜 절망은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곤 하지 않던가. 문제가 지속되는 건 ‘예외 없는 연대’를 무력화하는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지 않던가. 작가에게 예외 그 사려 깊고 정성스러운 태도를 그대로 간직한 채 이 절망까지를 살피달라고 요청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 아니 가혹한 일일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안다. 오래전 한 영화감독이 말한 것처럼 ‘희망과 사랑을 위선적이지 않은 태도로 발언’하는 것이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창작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버닝>은 작가에게 그런 기대를 품어도 된다고 말하는 작품이었다.

끊임없이 다음이 궁금해지는 세 작가의 이야기:

<세 개의 화령전 작약>

황수아 작가의 <세 개의 화령전 작약>(이하 <작약>)은 독립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였던 조선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작가인 나혜석(1896~1948)의 그림 ‘화령전 작약’에 얹힌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이야기다. 허나 20세기 전반기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사

극의 형태를 띠는 작품은 아니다. 촘촘하고 매력적인 다층적 시간의 열개 속에서, 나혜석의 삶은 <불꽃의 여자 나혜석>이라는 작품을 준비 중인 대학 강사이자 연극 연출가 이기형과 나혜석 역의 배우 황원재, 그리고 이기형이 취재 의뢰차 만나는 문화부 기자 김수영에 의해 선택적으로 발굴될 뿐이다.

기실 <작약>의 서사적 매력은 추리소설의 형식에 있다. 극은 대본을 쓰다가 나혜석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기형이 기자 김수영을 만나 자신이 발견한 것들과 여전히 남은 궁금증을 털어놓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기형은 묻는다. ‘화령전 작약’을 포함한 나혜석의 그림들을 전소시킨 화재 사건의 전모는 무엇일까? 혹 나혜석에게 원한을 품었던 누군가의 방화는 아니었을까? ‘화령전 작약’이 몇 점 더 있지는 않았을까? 질문과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발생시키는 또 다른 가능성은 이기형의 이야기를 듣는 김수영이 그러하듯 관객으로 하여금 점점 더 나혜석의 삶에 호기심을 느끼게 할 터. 다음, 그다음이 어서 빨리 이어지길 궁금하게 하는 이야기의 추진력은 이처럼 추리소설의 형식으로 확보된다.

허나 <작약>은 ‘사실(史實)’을 좇는 역사 연구가 아니다. 사라진 그림 ‘화령전 작약’을 둘러싼 진실 찾기는 서스펜스를 위한 극적 장치일 뿐이다. 무대 위 그 어떤 허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펼쳐져도 관객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일 뿐. 관객의 질문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은 ‘화령전 작약’의 실체도, 결혼·출산·불륜·이혼·객사로 이어진 나혜석 인생의 진실도 아닐 터다. 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사적 장치로서의 질문들이 겹치고 극의 마지막에 이르면 관객은 어떠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가? 이기형이 자신의 작품 <불꽃의 여자 나혜석>에 “한 인간의 불완전함”을 담았다면, <세 개의 화령전 작약>에 작가 황수아가 담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극의 말미, 기자 김수영은 진실을 찾아 사라진 그림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프랑스로 떠나려고 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김수영의 그 말이 무척 의아했다. 나혜석은 이미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맞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부단히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나혜석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혜석뿐이지 않은가. 사람들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쓴 것으로 자신을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혜석은 쓰고 또 쓴 것이 아니었을까. 하여 나는 나혜석이 바라지 않았던 ‘독자’가 되어 작가 황수아의 이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본 공연으로 다시 만날 때는 <작약>을 지탱하는 세 명의 작가, 나혜석·이기형·황수아 중 <작약>의 진짜 작가인 황수아의 이야기를 좀 더 찬찬히 들어보려고 한다.

전영지

드라마터그&공연 칼럼니스트. 극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보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극장 밖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
컴플리트 피아노 트리오 II



Ludvig van Beethoven

피아노 박종훈

바이올린 파벨 베르만

Complete
Piano Trios II

2025.
9. 27. SAT
17: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첼로 비토리오 체칸티

티켓 R석 35,000원, S석 25,000원

관람연령 7세이상 관람가(2018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티켓예매 NO티켓 1544-2344

문의 경기아트센터 031-230-3267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INSIGHT

ART AND THE CITY

평창, 대자연의 보고 안에서 어우러지는 거대한 음악당

ATTRACTION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속 예술

ARTIST TALK

예술인과 함께, 성장을 향한 특별한 동행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5인 인터뷰

ON & OFF

온라인의 인기가 문화예술 '굿즈' 인기로!

ESG & ART SCENE

기후 위기 시대의 예술: 공생을 위한 실천적 제안



평창, 대자연의 보고 안에서 어우러지는 거대한 음악당

해발 700m 고원에서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숲의 교향곡. 강원 특별자치도 평창군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자연 음악당의 이름이다. 백두대간의 품에 안겨 사계절 다른 얼굴로 변화하는 이곳에서, 클래식 선율은 녹음과 어우러져 더없이 충만한 감동을 선사한다. 22년간 이어진 평창대관령음악제의 고장, 23년간 대표적인 국내 문학제로 성장한 효석문화제가 뿌리 내린 곳, 30대에 정착한 내가 발견한 것은 예술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평창이었다.

글&사진. 윤민혁(작가)

하나의 숲으로 이뤄진 절경의 평창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는 평창이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평균 해발 고도 700m이다. 동서남북 백두대간으로 연결된 대숲에 빛이 들어오면 거대한 에메랄드 원석으로 변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아름답고 품위 있는 지역이던가. 고산 지역답게 이 기후 위기 경보인 시대에도 열대야가 기록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2024년 이후 평창의 여름 낮도 더워졌지만, 해가 지고 밤이 오면 어김없이 25도까지 떨어지고 새벽이면 18도에서 20도 전후다.

그 평창에서도 북유럽 노르웨이 같은 기후를 가진 곳, 바로 대관령이 있다. 얼마나 겨울에 추운 곳이나 하면 한겨울에는 영하 26도까지 떨어진다. 식물 내한성 지도로 보면 미 국무부에서 지정한 겨울 최저점 온도 영하 28~26도로 5b 구역에 들어간다. 노르웨이 오슬로가 자매 도시인 평창은 이렇게 한겨울이 추운 곳이다. 그러나 그 추위도 상당히 매력 있다. 대숲과 함께 있으니까 말이다.

BYEONGCHANG

37° 22' 0" N, 128° 24' 0" E

평창 대관령 용산리 싸리재. 드넓은 초원지대로 한우들이 방목되는 곳이다.



평창의 아름답고 멋진 전나무 숲.



폭설이 내린 대관령의 겨울.



2025 평창대관령음악제 사진 : ©평창대관령음악제, JONGHEE LEE.



2025 평창대관령음악제 사진 : ©평창대관령음악제, JONGHEE LEE.

국제 스포츠의 중심에서 글로벌 문화예술의 도시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평창은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물론 용평스키장이 1975년 들어오면서 이미 시작이 반이라고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한다. 평창군만 말하자면 인구 4만이 채 되지 않는 곳에서 동계스포츠를 훌륭히 치러냈다. 이미 자리 잡은 용평스키장은 전 세계 사람들이 겨울이면 모여들었다. 눈이 오지 않는 곳에 사는 동남아 사람들도 봄비가 시작됐다. 그것이 동계스포츠가 주는 힘이었다. 그들은 설국의 고장이 주는 설경에 감동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임에 따라, 평창은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했다. 마치 평창의 전나무가 자라듯이 피톤치드 향을 내며 천천히 고도를 따라 올라갔다. 2004년에는 드디어 제1회 평창대관령음악제(당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용평리조트에서 장대한 서막을 올렸다. 그리고 올해 제22회 평창대관령음악제까지 길고 긴 여정을 하게 될지 그 당시는 알 수 없었다. 겨울이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관령 눈꽃 축제, 평창 송어축제,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대관령겨울음악제,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등 문화예술의 바람이 불었다.

해발 7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

율은 근사하다. 알펜시아 콘서트홀, 뮤직텐트는 음악을 위해 평창에서 태어난 홀이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홀이다. 알펜시아 콘서트홀은 640석 규모이고, 알펜시아 뮤직텐트는 830석 규모로 오페라, 심포니, 협주곡 등을 시원한 대관령 바람의 호위 안에서 함께 들을 수 있다. 몇 해 전, 평창대관령음악제 기간 프로코피예프 오페라 <세 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 초연을 뮤직텐트에서 한 적이 있다. 마린스키 관현악단 부지휘자를 비롯하여 러시아의 초절기교 성악가들이 대거 방문했는데 830석의 뮤직텐트를 감동의 축제장으로 이끌었다.

또한, 평창문화예술회관은 450석 규모의 대공연장,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까지 갖춘 대형 문화공간이다. 관객객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목말라 있는 평창 지역민에게도 단비가 내리는 장소인 것이다.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의 작고 큰 문화예술 전시를 사계절 내내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평창의 어느 지역에 있어도 평창문화예술회관까지 오가는 길은 크고 작은 침엽수들의 빛과 그림자 사이를 관통해야 한다. 평창의 우리 자생종 잣나무 같은 그윽한 곳이다. 잣나무 향을 맡으며 그 나무 아래를 걸어 본 적이 있는가? 그곳에서는 누구나 예술가가 되고 만다.



2025 평창대관령음악제 사진 : ©평창대관령음악제, JONGHEE LEE.

평창대관령음악제 등 사시사철 축제에 젖어

운이 좋아, 2004년 제1회 평창대관령음악제(대관령국제음악제)를 보게 되었다. 용평 눈마을홀에서 시작된 콘서트의 시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한 나에게는 또 다른 세계의 등장이었다. 딸아이와 함께 간 마스터 클래스는 작은 충격이었다. 산들바람이 부는 태백산맥의 한 줄기 평창에서 그것도 가장 시원한 대관령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된 일이었다. 며칠 전 제22회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 지역 애호가로서 많은 분과 함께 쏟아지는 대관령의 별들을 바라보며 음악 여행을 즐겼다. 22년의 기록이 지속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이다.

계촌클래식축제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에서 열리는 클래식 야외 축제의 장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에 술종합학교가 주관하는데, 그곳에 바로 평창군 계촌클래식축제가 우뚝 서 있다. 작년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과 갔었는데 대관령에서 방림면으로 가는 길은 무척 아름답고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을 드라이브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우리는 음악을 이야기했고, 첫사랑에 설레듯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조성진의 멋진 아티클레이션에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날, 그 작고

울망줄망한 아름다운 마을 계촌리에 수천의 사람들이 가득 찼다. 모두 그날의 산골 음악회에, 그 수준 높은 음악회에 감동했다.

한국의 '엘 시스템아(EI Sistema)'라고 불리는 계촌별빛오케스트라는 계촌초등학교 전교생이 단원으로 이루어졌다. 언젠가 계촌클래식축제의 개막 무대를 맡아 그 의미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그것이 문화의 힘이고 예술의 존재 이유다.

2025년 평창효석문화제는 <평창에서 누리는 지적 사치, 문화와 미식>을 슬로건을 정하고 평창효석문화재 공간을 6구역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볼거리와 나눌 거리, 즐길 거리를 구성하였다. 여러 이벤트도 펼쳐지는데 전국효석백일장, 메밀꽃강통열차, 당나귀 체험, 메밀꽃밭 한지공예 전시, 무이예술관 미술 체험, 제5회 사생대회 등 다양한 체험과 문화 체험이 가능하며 대관령 한우, 지역 청년미식회, 주민포차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되었다. 더불어 축제 동안 마당극, 청년가요제를 비롯하여 책도 읽고, 책 이야기 마당, 문학 산책 등 슬로건 그대로 평창에서 누리는 지적 사치와 문화와 미식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대관령 야외공연장(뮤직텐트) 사진 : ©평창대관령음악제.

문화예술도시 평창의 터전을 가꿨던 마음들

평창군은 총인구가 4만이 되질 않아,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쉽지 않다. 이 와중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하면 생각나는 마에스트로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 출신의 구스타보 두다멜이다. 현재 LA필하모닉 음악감독인 그는 한때 자국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두다멜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선택했다. 가난과 비행으로 헤어날 수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오래된 악기들을 하나씩 선사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계촌클래식축제는 2013년도부터 계촌리 계촌초, 중학교 학생들이 현악 중심으로 직접 무대에 오르는 오프닝 행사를 치르고 있다. 클래식 음악의 불모지인 곳에서, 클래식 축제가 열리는 산골 마을 현지 초, 중학생들의 이러한 퍼포먼스는 신선한 충격과 지역 자부심으로 꿈과 희망을 이루며 열리고 있었다.

평창대관령음악제(대관령국제음악제)에 여러 번 참가한, 조성진, 손열음의 성장은 이곳에서 오래 한 나에게 멋진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미 그 당시 신들린 연주를 펼친 조성진은 2015년 제17회 쇼팽 콩쿠르를 우승하고, 손열음은 2011년 제14회 차이코

“

그 무한하게 펼쳐지는
서늘하고 차가운 침엽수림 안에서 즐긴
클래식 음악, 꽃, 책, 방목된 말들까지
모두 영혼의 친구처럼 지냈다.
이것은 일찍 귀촌을 결심한 후
자연에서 얻은 최고의 세로토닌이다.
바흐를 좋아해 이곳 모두를
바흐의 숲이라고 한다.

”



끝없이 펼쳐지는 대관령 고랭지 밭의 풍경.



첩첩산중 도암호 가는 길.



아침 해가 잔잔히 비치는 평창의 전나무 숲.



2025 평창대관령음악제 사진 : ©평창대관령음악제, JONGHEE LEE.

프스키 국제피아노콩쿨 2위를 차지했으며 드디어 2018년 평창 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취임 후 다년간 그녀만의 음악 예술을 뽐내며 숨겨진 다른 악흥의 순간을 선보였다.

평창 대관령에 살아온 30여 년 동안 서서히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육성 및 지원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2017년 평창교육지원청은 평창진부체육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성화 봉송 응원'을 위한 '2017 평창 학교 오케스트라 연합캠프'를 개최했다. 평창 지역 학생들이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 배운 문화예술 집합을 발표하는 시간을 거쳤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하여 연합 합주하며 올림픽 성공을 기원했다. 이것이 클래식의 잔향이자 대자연에서 함께 한 문화예술의 힘이 었다.

평창, 경이로운 자연과 음악이 머무르는 곳

30대 초반 평창 대관령에 반해 귀촌 후 자유를 얻었다. 물론 사는 것은 여행 올 때와 많이 달랐다. 그러나 대자연 안에서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진 숲과 꿈 안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할 수 있었다. 그 무한하게 펼쳐지는 서늘하고 차가운 침엽수림 안에서 즐긴 클래식 음악, 꽃, 책, 방목된 말들까지 모두 영혼의 친구처럼 지냈다. 이것은 일찍 귀촌을 결심한 후 자연에서 얻은 최고의 세로토닌이다. 바흐를 좋아해 이곳 모두를 바흐의 숲이라고 한다. 20년간 이틀이 멀다 걸으면서 듣던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평균율, 바이올린 소나타, 요한 수난곡, B단조 미사, 마태 수난곡은 눈물이 날 정도로 경이롭고, 질식할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그 곁에는 평창 대관령의 나 홀로 즐기는 고독이라는 친구와 걷기의 즐거움이 나를 매일 쫓아다녔다. 자연은 시어머니처럼 종종 변덕도 심하고 아버지처럼 든든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은 자연에서 나왔다. 평창의 배추 냄새 나는, 감자 썩은 내 나는, 위대한 향수인 이곳의 풀 향을, 거칠고 부드러운 대자연을 사랑한다. 그 대자연 안에 거대한 음악 예술당이 있었다. 그것이 나의 사랑 평창이었다.

윤민혁

현재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서 살바토레펜션을 운영하며 글을 쓰고 있다. 소설 『바흐의 숲』, 에세이 『살바토레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를 쓴 작가이며, 클래식 애호가, 정원사이자 사진가이기도 하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속 예술

한일 월드컵이 열린 해에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왔다가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졌던 나에게 한국은 여전히 새롭고 놀라운 곳이다. 이번 글에서는 K-POP 벽화부터 조경 예술, 지하철역의 풍경까지, 일상 곳곳에 스며든 한국의 예술적 감성을 일본인인 나의 지극히 사적인 시선으로 전해 본다.

글. 나리카와 아야(작가, 전 아사히신문 기자)

K-POP의 나라, 한국의 벽화

내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의 지하철 정발산역 앞에 2021년 8월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점점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BTS 리더 RM의 벽화라는 것을 알았다. RM의 출신지가 고양시다. 사진처럼 리얼한 RM의 그림 위로 고양시의 캐릭터 '고양고양이'도 그려졌다. 나에게서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보는 가장 일상적인 아트가 됐다.

그런데 그 당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일 왕래가 어려운 시기였다. 내가 SNS에 RM의 벽화 사진을 올렸더니 일본 ARMY(BTS 팬)한테 열른 보러 가고 싶다는 뜨거운 반응이 왔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는 RM의 벽화 사진을 찍으러 해외에서 온 ARMY들의 모습을 일상적으로 자주 보게 됐다.

BTS 멤버들의 벽화는 한국 각지에 있다. 나는 일본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서 BTS 벽화를 소개한 적도 여러 번 있다.



공주, 정국 벽화(출처: 나리카와 아야 제공).



고양시 캐릭터와 함께 그려진 RM 벽화(출처: 나리카와 아야 제공).

한번은 부산에 있는 정국과 지민의 벽화를 일본 학생들에게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2021년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기획으로 '온라인 수학여행'을 실시했을 때였다. 내가 리포터를 맡아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을 안내하면서 정국과 지민의 벽화도 소개했다.

'온라인 수학여행'은 원래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학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게 돼서 온라인으로 여행한 기분이라도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개최됐다. 미리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일본 학생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했다. 다양한 질문을 받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의 사례였기에 더 의미 있었다. 원래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몰려온 피난민이 정착한 곳이며 학생들은 그런 역사도 함께 배울 수 있고, 영화나 드라마, 뮤직비디오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에도 잘 맞는 곳이었다. 나도 리포터를 하면서 예술가나 주민들이 벽화를 그리고 관광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배웠다. 그 벽화 중 하나가 정국과 지민의 벽화였다.

최근에는 BTS 멤버들의 군대 제대에 맞춰서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벽화마을을 찾았다. 일본 잡지 아에라(AERA)의 취재 때문이다. 6월에 멤버들이 모두 제대하기 전에 나가는 기사로 제대 전에 찍을 수 있는 사진을 ARMY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공주시 이인면에 멤버 7명의 벽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일산의 RM이나 부산의 정국과 지민처럼 출신지에 벽화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주시 이인면은 멤버의 출신지도 아닌데 7명 모두의 벽화가 있다. 그곳에 가서 7개 벽화의 사진을 찍고 정국의 벽화가 있는 카페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찾아온 ARMY도 카페에 머무르다 간 모양이었다. ARMY가 남긴 메시지가 카페 내벽 곳곳에 있고, 읽어보니 군대에 가서 못 보게 된 멤버들을 벽화로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온 절실함이 느껴졌다.

사실 멤버가 제대해도 멤버를 직접 만나기는 어렵다. 그 대신 해외에서 한국을 찾은 ARMY는 멤버와 관련이 있는 곳을 다니는 '성지순례'를 즐기는데 벽화도 그 문화 충족 요소 중 하나가 된다. 반면 일본에서 아이돌의 벽화는 별로 못 본 것 같다. 일본은 역시 '만화 대국'이다. 벽화도 만화의 벽화는 많다. 특히 유명한 곳은 에히메현 다카이카미 섬이다. 작은 섬이지만 '만화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Dr.코토 진료소>나 <캔디캔디> 등 인기 만화 캐릭터가 빈집이나 공공시설에 그려져서 만화 팬들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

벽화 말고도 일본은 만화 관련 길거리 아트는 정말 많다. 특히 유명 만화가의 탄생지에는 대표작의 캐릭터 동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돗토리현 사카미미나토시에는 '미즈키 시게루



부산, 정국과 지민의 벽화(출처: 나리카와 아야 제공).



공주, 지민 벽화(출처: 나리카와 아야 제공).



공주, 뷔 벽화(출처: 나리카와 아야 제공).



타카야카미 섬의 만화 벽화(출처: Kamijima Town(上島町) 공식 관광 웹사이트).

66

사실 멤버가 제대해도 멤버를 직접 만나기는 어렵다.
그 대신 해외에서 한국을 찾은 ARMY는
멤버와 관련이 있는 곳을 다니는 '성지순례'를 즐기는데
벽화도 그 문화 충족 요소 중 하나가 된다.
반면 일본에서 아이돌의 벽화는 별로 못 본 것 같다.
일본은 역시 '만화 대국'이다.

99

로드'가 있다. 미즈키 시게루는 요괴 만화 '계계계의 기타로'로
유명하다. 사카미미나토역 근처 길에는 178개의 요괴 캐릭터
동상이 줄지어 있다.

길거리 아트만 봐도 한국은 K-POP의 나라, 일본은 만화의 나
라구나 싶다.

초록이 많은, 서울의 풍경

일본에서 서울로 놀러 온 친구들은 한강을 지나면서 초록이 많
아서 예쁘다고들 한다. 예를 들어 선유도공원이다. 한강에 떠 있
는 선유도는 나무가 많아 지나가면서 초록색이 눈에 확 들어온
다. 작년, 이 선유도공원을 만든 정영선 조경가에 관한 다큐멘터
리 영화 <땅에 쓰는 시>(2004)를 봤다. 나는 사실 이 영화를
볼 때까지 조경가라는 존재 자체를 잘 몰랐다. 알고 보니 정영선
조경가는 선유도공원뿐만 아니라 호암미술관 정원이나 경춘선
숲길 등 수많은 조경을 담당한 한국 조경의 일인자였다. <땅에
쓰는 시>는 그 조경에 어떤 철학이 담겼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
였다.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전시장 현장(출처: 나리카와 아야 제공).

정영선 조경가가 '조경은 지구를 보살피는 일'이라고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인공적인 풍경으로 바뀔 뻔했던 곳을 정영선 조경가는 미래를 위해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렵게 지켜냈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다. 정영선 조경가 덕분에 초록이 많은 서울의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땅에 쓰는 시>는 일본에서도 곧 극장 개봉할 예정이다.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하는 일은 흔치 않은데 그만큼 일본 관객에게도 호소력이 있다고 일본 배급사가 판단한 것이다. 기후 변화는 세계 공통의 과제이며 한국도 일본도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일찍부터 그 중요성을 호소하고 실천했던 정영선 조경가는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다.

일본에서는 'SDGs'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2030년까지 기후, 환경, 빈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17가지 공동 목표를 의미한다. 2021년에 내가 리포터를 맡은 '온라인 수학여행'의 주제가 도시재생이었던 것도 SDGs 관련으로 기획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전시 포스터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수학여행’ 때 서울의 도시재생 사례로는 청계천을 소개했다. 나도 청계천 복원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2002년에 처음 서울에 유학한 당시 청계천 고가도로 주변은 어둡고 위험한 분위기였다. 청계천이 복원된 것은 내가 두 번째 서울에 유학한 2005년이였다. 확 달라져서 밝아진 모습에 감동했다. 청계천 하나로 서울의 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

올해는 유현목 감독 탄생 100주년이다. 나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 일본어 자막 감수를 맡아 최근 유현목 감독의 영화 <오발탄>(1961)을 유심히 보다가 청계천 복개 공사 진행 중인 모습을 발견했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직접 봤는데 덮어지는 모습을 영화로 봐서 신기했다. 하천을 덮었다가 복원한 사례는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청계천에서 열린 행사 중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야외 도서관’이다. 청계천에 발을 담그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여윌롭다. 흐르는 물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물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2천여 권의 책을 자유롭게 빌려서 냇가에서 읽을 수 있는 ‘야외 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일상에 스며있는 초록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다.

나 또한 일 때문에 매일같이 서울에 나가면서도 일산에 계속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일산호수공원 때문이다. 물도 있고 나무도 많고 그 풍경을 집에서 내려다보면서 살 수 있는 행복은 크다. 산책도 자주 간다. 특히 호수공원의 명물, 음악에 맞춰 연출되는 분수쇼 ‘노래하는 분수대’는 내가 가장 즐기는 일상 속 아트의 하나다.

잠재력 품은 예술 공간, 한국의 지하철역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일상 속 예술로 소개하고 싶은 하나는 철도역에서 출발할 때 들리는 멜로디다. 역마다 멜로디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JR 오사카 순환선에서는 오오츠카 아이의 ‘사쿠란보’나 aiko의 ‘하나비’ 등 오사카 출신 가수들의 노래가 많다. 오사카 출신인 나는 이 멜로디를 들으면 돌아왔다는 실감이 난다. 서울의 지하철도 환승역임을 알려주는 음악이 좋다. 하지만 역마다 다른 멜로디가 들리면 좀 더 일상이 즐거워지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도 철도역 관련 예술이다. 도쿄 시부야역에 있는 오키모토 타로의 그림 ‘내일의 신화’다. 원폭이 작렬하는 순간을 표현한 세로 5.5m, 가로 30m의 거대한 벽화로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다. 오키모토 타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의 상징이었던 ‘태양의 탑’도 오키모토 타로의 작품이다. 대표작 두 개가 모두 미술관 밖에 있다. 그래서 오키모토 타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하철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광고가 많지만, 유명 화가의 그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미술관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출퇴근으로 지친 사람들과 해외에서 놀러 온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좀 더 예술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남겨 본다.

나리카와 아야(成川彩)

일본 고베대학교 법학부에서 공부했고, 오사카대학교 대학원에서 통·번역을 배워 한국어 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했다. 아사히신문에서 문화 담당으로 연극과 뮤지컬 등을 취재했고, 퇴사 후 한국으로 건너와 다양한 매체에 기사와 칼럼을 집필 중이다. 지은 책으로 『어디에 있든 나는 나답게』, 『지극히 사적인 일본』 등이 있다.

예술인과 함께, 성장을 향한 특별한 동행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5인 인터뷰

GYEONGGI
ARTS
CENTER



카메라 앞에서 살짝 긴장한 듯 상기된 얼굴로 포즈를 취하는 주인공들. 지난 6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으로 선발된 젊은 예술가 5인을 만났다.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제'는 재능 있는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총 29명의 단원은 공연 출연료와 활동비 등을 지원받으며 각자의 무대에서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제가 가져온 변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들어보았다.

글. 편집실 | 사진. 박성수(싸우나스튜디오)

끊임없이 도전하는 '새싹' 같은 배우

경기도극단
프로젝트 단원

박인선



그녀의 미소 한 번에 꽃은 날씨의 구름이 걷히는 듯했다. 박인선은 2022년 연극 <여자의 평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다. 누구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임하는 그녀, 앞으로 경기도극단에서 활약할 모습이 무척 기대된다.

Q. 경기도극단 프로젝트 단원제에 선발된 소감은?

경기도극단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사실 2년 전에도 프로젝트 단원에 지원했다가 1차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큰 기대 없이 지원했는데 합격하게 되어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얼떨떨해요. 마치 행복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Q. 첫 무대인 <여자의 평화>에서 메티스 역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선보인 바 있는데?

졸업 이후 첫 프로 무대로 3년 전이네요. 되돌아보면 정말 짱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팀 막내였는데, 작품의 주인공과 맞먹는 분량의 역할을 맡았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멋모르고 그냥 거침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뻐했던 무대였답니다.

Q. 배우로서 본인의 강점은?

끊임없이 도전하고자 하는 게 제 가장 큰 강점이에요! 물론 가끔 두렵기도 하지만, '일단 해보자 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요. 해보고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빨리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배우라면 오디션이宿命인데, 붙든 안 붙든 도전해 보고, 떨어지면 금방 털어내고 다시 준비하려고 하죠.

Q. 앞으로 어떤 공연을 보여주시길 건가요?

하반기 예정된 경기도극단 기획공연이 아마도 9월부터는 연습에 들어갈 거예요. 경기도극단에서 정식으로 연습해보는 건 처음이라 과연 어떤 연습 과정이 될지 기대되고 설레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될 때까지 끝까지 가보는' 무용수

경기도무용단
프로젝트 단원

류지선



17세,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무용을 시작한 류지선. 무리 중 꼴찌를 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온 끝에 제5회 한가람 전국무용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하며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다. 이제 그녀는 '무대에 꼭 필요한 무용수'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Q. 한국무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릴 때 잘 따르던 언니가 한국무용을 해서 늘 관심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반대로 남들보다 늦은 17세에 무용을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해 왔어요. 그 과정이 서럽기도 하고 꼴찌도 여러 번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올곧이 무용수의 길을 가고 있어요.

Q. 이전에 경기도무용단 공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무용단 공연을 대학생 때 처음 보았죠. 그 후로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무용단은 무용수들의 합이 조화로운 무용단이었어요. '아, 프로무용단은 역시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죠. 이제 경기도무용단에 소속된 만큼, 어떤 공연에도 잘 어울리고 무대에 꼭 필요한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Q. 슬럼프는 없으셨나요?

'무용을 그만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용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제는 슬럼프가 와도 '지금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잠시 쉬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쉽게 이겨내고 있어요.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도 궁금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춤추고 필요한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무엇보다 경기도무용단 정단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무에도 계속 도전할 거예요. 저답게 계속 도전하다 보면 끝내 모두 이룰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어요.

수천 년의 소리로 '소통'하는 생황 연주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프로젝트 단원

정가영



'봉황의 울음소리'라 불리는 생황. 그 맑고 신비로운 선율로 관객과 소통하는 젊은 연주자가 있다. 중학생 때 국악관현악의 연주를 듣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정가영이다.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제44호 삼현육각 전수생인 그는 생황이라는 악기의 무한한 가능성과 매력에 푹 빠져 있다.

Q. 국악, 그중에서도 생황을 선택하신 이유는?

중학교 방과후 활동으로 처음 국악관현악을 접하며 국악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국악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맑고 신비로운 음색을 지닌 생황이라는 악기가 좋아서 지금까지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생황은 국악 관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랍니다.

Q. 지난해 이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오르셨죠.

2024 <젊은 명인: Young Virtuoso> 공연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에서 국악 인재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엄격한 오디션 과정을 거쳐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악기와 협연자들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졌고, 공연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받았던 감사한 경험이었지요.

Q.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프로젝트 단원으로서는 어떤 공연에?

7월 진행된 공연에 프로젝트 단원으로 두 차례 참가할 수 있었어요. 8월에는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에 참여했고요. 단원으로 합류한 후 처음 올리는 공연들이라 정말 떨렸지만, 단원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Q.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단원제가 큰 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소속'이 생겼다는 점이 정신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었고, 꾸준히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레퍼토리와 교류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바이올리니스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로젝트 단원

정수아



그저 음악이 좋아 8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던 아이, 정수아. 그는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 출신으로 숙명여대 바이올린 전공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예음악콩쿠르 현악 대상을 비롯해 다수의 콩쿠르 수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 그녀가 빛어갈 선율이 궁금하다.

Q.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로젝트 단원제에 선발된 소감은?

항상 동경해 왔던 경기필 프로젝트 단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해요.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로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 추천으로 이 프로젝트를 알고 있던 터라, 공고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지원했었죠.

Q. 학업과 연주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셨는데요.

교양 수업과 전공 수업은 물론 외부 콩쿠르와 연주 활동도 병행하다 보니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곡을 공부하면서 제 음악적 레퍼토리나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던 순간들이 너무나 보람 있었어요.

Q. 공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보다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긴장 때문에 연주를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경험이 많았어요. 관객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연주를 위해 어떤 무대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음악 자체를 즐기며 연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 앞으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오케스트라, 실내악, 솔로, 티칭까지 바이올린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음악의 맥락과 깊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폭넓은 음악을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트롬본 연주자

경기팝스앙상블
프로젝트 단원

황동규



황동규는 포근한 트롬본 소리의 매력을 그대로 닮은 연주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관악부에서 트롬본을 처음 접한 후 그 매력에 빠져 전공으로 선택했으며, 현재까지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케스트라부터 뮤지컬까지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는 그의 음악에 주목해 보자.

Q. 트롬본 연주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트롬본은 사람의 음역대와 굉장히 가까운 악기예요. 피스톤이나 로타리를 사용하는 다른 금관악기와 달리 슬라이드를 사용하는데, 같은 슬라이드 포지션이라도 입술의 떨림과 호흡 스피드에 따라 다채로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소리에 감정을 표현하기가 매우 좋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지요.

Q. 슬럼프는 없으셨나요?

대입 준비 중 무리하게 연습하다 입술 근육이 심하게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입술이 떨리지 않아 악기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죠. 하필 가장 중요한 때 그런 일이 생겨 마음이 급했지만, 차분히 다시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기본기 연습만 2달 정도 하면서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Q. 2024 뮤지컬 <시카고>에 트롬본 연주자로도 참여하셨는데요.

극 흐름에 따른 타이밍이 중요해서 음악을 거의 외우고 지휘자의 사인만 보고 있어야 할 때도 많았죠. 오케스트라 연주는 여러 악기의 풍부한 소리가 조화롭게 무대를 울리며 감정을 전달하는 게 매력이라면, 뮤지컬 연주는 극과 극 사이의 긴장감, 배우들과 밴드의 앙상블이 극을 더 고조시키는 매력이 있죠.

Q. 프로젝트 단원이 된 후 어떤 공연에 참여했나요?

7월과 9월 초청연주에 참여했어요. 공연 당일 연령층에 따라 연주곡이 조금씩 변경되더라도 바로 연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고, 편하게 무대를 함께 즐기는 느낌이 눈앞에서 생생히 느껴져서 연주를 마칠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온라인의 인기가 문화예술 '굿즈' 인기로!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Merch, 특정 브랜드, 아티스트, 작품과 관련된 상품)가 뜻하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관객들은 온라인에서 접한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체험과 소유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문화적 경험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문화예술기관에 새로운 기회다. 온라인 콘텐츠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젊은 관객층을 확보하고, 굿즈를 통한 부가 수익도 창출하게 되었다. 이미 성공적인 온라인 활용으로 실제 매출 증대와 관람객 유치에 성공한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들을 둘러보자.

정리, 편집실

CULTURAL MERCHANDISE SUCCESS



굿즈의 대명사가 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온라인에서 '굿즈 장인'으로 불린다. '굿즈'는 뮤지엄과 굿즈를 합친 말이다. 2022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만든 상품 브랜드이지만, 박물관·미술관 특화상품을 통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아이돌 RM의 추천으로 주목을 받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시작으로 술을 따르면 술잔에 그려진 취객 얼굴이 발강게 변하는 '취객 변색잔', 석굴암을 재현한 '석굴암 조명' 등이 인기를 끌어들였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캐릭터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를 닮은 굿즈 상품인 '까치 호랑이 배지'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며 품절 행진을 기록 중이다.

www.museumshop.or.kr

(이미지 출처: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뮤지엄샵)



'어린이들' 사로잡은 미국 자연사박물관

미국 자연사박물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공룡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공룡 모형 피규어, 문구, 티셔츠 등이 레트로 감성과 결합하면서 '어린이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배경이다. 전시물인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표본이 영화의 인기 캐릭터 '렉시'로 등장하여, 공룡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은 곳이다. 자체 굿즈가 상당한 매출 수익을 창출하며, 뮤지엄 굿즈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독립적인 수익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hop.amnh.org

(이미지 출처: 미국자연사박물관 온라인샵)





대형 브랜드와 콜라버 나선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은 대형 브랜드와의 콜라버로 뮤지엄 굿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1년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와 향후 4년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곧 모나리자와 다른 걸작들을 활용한 티셔츠(UT)를 일본과 온라인에서 판매했다. 출시 직후 모나리자 티셔츠는 완판됐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루브르 박물관만의 브랜드 파워가 있다.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성에 글로벌 브랜드의 유통망이 결합하면서, 뮤지엄 굿즈가 일반 패션 아이템과 당당히 경쟁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다.

www.uniqlo.com

(이미지 출처: 유니클로)



드라마틱한 이슈의 주인공이 된 미네소타 과학박물관

미네소타 과학박물관은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Stranger Things)> 시즌2를 통해 굿즈를 재생산하게 된 드라마틱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기묘한 이야기>의 더스틴이라는 캐릭터가 1984년을 배경으로 한 극 중에서 보라색 브론토사우루스 골격이 그려진 미네소타 과학박물관의 후드티를 착용했다. 이 스웨트셔츠는 오랫동안 단종된 상태였다. 그런데, 드라마 방영 후 전 세계 팬들의 문의가 쇄도했고, 미네소타 과학박물관은 급히 재생산에 나선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온라인샵이 오전 11시에 다시 열린 후 오후 4시까지 40만 달러 상당하는 약 1만 개의 제품이 팔렸다.

store.smm.org

(이미지 출처: 미네소타 과학박물관)



굿즈 열풍의 다음은 경기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는 자체 개발한 SNS 캐릭터 '작콩이'를 활용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작'은 관객들의 환호성과 동시에 경기아트센터(GGAC)를 표현한 중의어이며, '콩'은 동글동글한 귀여운 모양을 의미한다. 작콩이는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및 전시 정보를 전달하는 공식 마스코트다. 이미 경기아트센터의 SNS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팬층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더욱 다양한 활용으로 경기아트센터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굿즈 브랜드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www.ggac.or.kr

(이미지 출처: 경기아트센터)



기후 위기 시대의 예술: 공생을 위한 실천적 제안

우리는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 자원 소비,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지구온난화, 생물 다양성 감소,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술은 이러한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공포와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

글. 김주원(큐레이터, 한빛교육문화재단 이사)



타츠키 료(たつき 諒), 『내가 본 미래』, 1999.
‘대재해는 2011년 3월(大災害は2011年3月)’이 쓰인 표지.
이미지 출처: 1999년판 『私が見た未来』 단행본 표지

‘기후 위기’가 말하고 있는 것

<배틀필드2042>(2021), <설국열차>(봉준호, 2013), <무한도전> 에피소드 중 ‘나비효과’(228회, 유재석, 정준호, 2010. 12. 18. 방영), <미래소년 코난>(미야자키 하야오, 1978 NHK 일본/1982년 KBS 한국) 등은 산업혁명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인류의 위기와 재앙의 징후임을 경고하는 대표적인 유명 대중문화 콘텐츠들이다. 게임, 영화, TV 예능, 애니메이션 등 대중매체 여러 장르에서 기후 위기를 주목하고 이를 경고하는 사례의 빈번한 등장은 관련 학문 분야 내부에서 이미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위의 작품들은,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과 생존(<배틀필드 2042>), 기상 이변에 의한 빙하기 속 생존 세계와 빈부격차 사태(<설국열차>), 개인의 사소한 행동이 불러온 나비효과로서의 지구온난화(<무한도전> 중 ‘나비효과’), 과학 문명의 오용으로 인한 암울한 미래와 원시 공동체의 동경(<미래소년 코난>) 등 각기 다른 서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광범위한 인간중심적 인간 활동이 지구의 실존적 위기를 초래하고 결국 디

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견인한다는 경고를 전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지구 지질이나 생태계에 미친 인류의 영향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를 열었다고 말한다. 인류세 시대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대량절멸에 의한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 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이며, 그 대표 물질로 방사선, 대기 중의 이산화 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을 지목한다. 그리고 인류세의 주요 특징과 물질이 지구 시스템 기능의 교란을 가속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제 기후 위기는 일상이 되어 버렸다. 얼마 전엔 괴물 폭우로 전국이 물에 잠기더니, 연일 또 최악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악의 가뭄, 빈번한 산불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사하라 사막에 눈이 쌓이고,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뉴스는 이제 자극적이지도 않다. 인류세 시대가 가져온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어쩌면 광범위한 인간 중심적 활동이 가까운 미래에 문명과 생태계 전체를 절멸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는, 가디언 등 외신들이



나현, <난지도 15-17>(서양민들레),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위에 혼합재료, 108×77cm, 2015,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이미지 출처: 나현 작가 제공

최근 앞다퉈 보도했던 ‘2025년 7월 일본 대재앙설’과 관련된 ‘일본여행 기피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7월 일본 대재앙설’은 일본 만화 『내가 본 미래—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코믹스(私が見た未来—ほんとにあった怖い話コミックス)』(1999)와 『내가 본 미래 완전판』(2021) 속 만화가 타츠키 료(たつき諒, 1954~)의 꿈 이야기 중 하나다. 사실, 이 만화를 그린 타츠키는 1999년 『내가 본 미래』가 출간된 해에 만화가로서의 활동을 중단했으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자, 이 책의 표지에 기재된 “대재해는 2011년 3월(大災害は2011年3月)”이라는 문구가 대지진을 예견한 것이라는 풍문이 퍼지면서 뒤늦게 주목받게 되었다. 이후 해당 작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확산에 따라 2021년 10월 수정·보완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 완전판에는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재앙 관련된 꿈이 추가되었다. 일본 열도 남쪽 난카이 해곡 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태평양 주변 국가에 해일이 닥친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 만화가 유튜브는 1천400개 이상 영상으로 퍼졌으며, 총 조회수가 1억 회를 넘었다. 이후 “2025년 7월,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은 확산했고, 그 여파로 일본여행을 취소하거나 일본행 항공편이 감편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 예언한 ‘2025년 7월 일본 대재앙설’의 7월 5일 오전 4시 18분에는 일본 열도를 위협하는 규모의 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쓰레기 속에서 핀 ‘식물’과 ‘구별짓기’

종말에 관한 예언과 누군가의 꿈 이야기가 현실에서 정말로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는 팬데믹으로 인한 자가격리 경험, 매일 아침 휴대전화가 알려주는 미세먼지 농도나 자외선 지수, 발암 물질과 방사능이 누출되었다는 뉴스, 온갖 괴담에 연루된 먹거리, 종(種)을 알 수 없는 식물, 동물, 곤충 등의 낯선 생명체에 관한 흥흥한 소문을 마주할 때마다 점점 더 강렬히 느낀다. 이런 류의 공포는, 인간중심주의나 일원적 가치관을 공고히 했던 ‘구별짓기’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인간과 비인간, 지배와 피지배, 제국과 식민 등의 구별짓기 행위는 일원화된 가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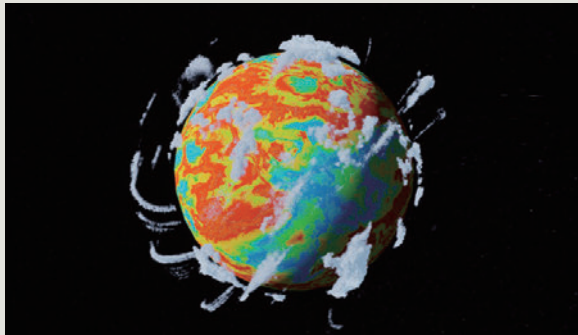
따라 어떤 것은 환대·찬미의 생명으로, 어떤 것은 혐오·공포의 괴물로 낙인찍힌다. 이 같은 구별짓기가 안겨준 부적절한 혐오와 공포가 선용된 예술 작품이 있다.

작가 나현의 작품 <난지도 15-17>(2015)는 산업화 시대 한국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에 실제 서식한 귀화식물 '노랑민들레'(서양민들레)를 채집하여 말린 후 압화한 드로잉 연작 중 하나이다. 작가의 연작 가운데에는 도시 곳곳에 피어 쉽게 볼 수 있는 귀화식물 '개망초', '서양등골나물', '미국자리공', '큰금꿩화', '백묘국' 등의 드로잉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생태공원이 된 서울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었다. 도시 서울의 경제 성장과 인구의 집중은 생활 쓰레기와 산업 쓰레기의 증가를 가져왔고, 대규모의 쓰레기는 난지도에 매립되었다. 혹자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가 쌓인 인공산 난지도를 가리켜 인류세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들 말한다. 전면화된 전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고유의 토착종과는 다른 모양의 낯선 외래식물들이 이른바 '쓰레기산'으로 불렸던 난지도에 유입되면서 자라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이들 식물은 우리네 밥상 반찬 혹은 약용으로 쓰이던 토착종의 성장을 방해하고 국내 생태계를 위협·잠식하는 혐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일 년 중 몇 번씩 뿌리째 뽑히곤 했다. 이후 모든 외래종이 생태교란종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귀화식물로 분류되는 외래종들은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며 혐오와 공포의 혐의에서 벗어났다.

'구별짓기'의 양가성, 공포에서 공생으로

2012년부터 난지도와 관련된 작업을 해왔던 나현의 드로잉 작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작가는 식물학자와



장진승, <에어로스트라타>(버전.0), 2025,
기후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 가변설치, 경기도미술관 커미션.
이미지 출처: 경기도미술관 보도자료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포스터.

이미지 출처: 경기도미술관 보도자료

함께 여러 차례 난지도 속 외래식물에 관한 채집과 조사를 하면서 토착 식물과의 공존과 화해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체 모를 외래식물 중 토착종과의 공생 가능성을 지닌 '귀화식물'들의 드로잉을 제작하였다. 예컨대, '난지도 15-17'은 표본으로서의 귀화식물 '노랑민들레'의 구체적인 실존을 밝히는 증명서인 셈이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는 식물의 이름, 학명, 원산지, 채집 장소 및 날짜, 특이사항 노트 등 채집한 식물의 이력 및 채집 정보가 적힌 간단한 서너 칸짜리 스탬프 형식의 표가 있다. 작가는 채집한 식물 '노랑민들레'에 관한 정보를 표 안에 손글씨로 적고 채집자로서 서명도 기재하고 있다.

"Name[이름]: 노랑민들레, 서양민들레 / Botanical Name[학명]: Taraxacum officinale / Place of Origin[원산지]: Europe", "Place, Date[장소, 날짜]: 노을 공원, 07.03 / Note[특이사항]: 여러해 살이풀, 속씨 식물 / 3-10월 노랑색 꽃 필/계절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 지금은 많이 퍼져 있다."

이 같은 작가의 작업은,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인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 23~79)의 『박물지(Naturalis historia)』(1세기) 이래 '구별짓기'라는 근대 분류학의 위계적 기획에 배태된 모순으로서의 '공포'를 '공생'으로 전환하는 실천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치 없어서 버려진 인류세의 지표가 연대와 공생을 위한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순간으로의 실천 말이다!

김주원

대구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에서 학예연구실장을 지냈다. 홍익대학교 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 CCA 기타큐슈 초청 펠로우로 활동했다. 2002년부터 현대미술 분야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전시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GGAC

STORY

ZOOM IN

함께 이끄는 경기아트센터의 변화 속으로!

前 조직혁신 TF팀 김기현 팀장, 김혁진 주임, 노은영 주임PD

GGAC NEWS

CALENDAR

EPILOGUE



함께 이끄는 경기아트센터의 변화 속으로!

前 조직혁신 TF팀 김기현 팀장, 김혁진 주임, 노은영 주임PD



前 조직혁신 TF팀의 김혁진 주임(왼쪽)과 김기현 팀장(중앙), 노은영 주임PD(오른쪽)

조직의 변화를 불러오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의 광역 문화예술 컨트롤타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첫발을 무사히 내디뎠다. 조직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조직혁신은 단순한 구조 개편을 넘어, 예술과 행정, 공공성과 창의성의 균형을 이루는 '경기도형 예술생태계 조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피어났다. 경기아트센터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직접 밑그림을 그리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 색을 입혀 나갔다. 조직혁신 TF 팀원으로 기꺼이 그 변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글. 편집실 |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Q. 조직혁신 TF에서는 어떤 역할이셨나요?

김기현 안녕하세요. 현재 공연본부 G브랜드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이번 조직혁신 TF에서는 팀장을 맡아 조직혁신 TF 활동을 총괄 담당했습니다.

노은영 예술본부 소속으로, 경기아트센터에서 어느덧 8년째 근무하고 있는 노은영입니다. 극단의 기획공연 업무를 맡고 있고요. 이번 조직혁신 TF에서는 G-ARTS 브랜드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방향을 정리하고, 예술단과 센터가 어떻게 함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혁진 안녕하세요. 기획홍보팀 김혁진 주임입니다. 인사, 규정 전반, 내부소통 프로세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혁신 TF에서는 직무분석 및 조직체계 개선안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노은영 저희는 경기아트센터가 그려갈 그림에 밑그림을 함께 그린 사람들인 셈이죠.

Q. 조직혁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전략은?

김기현 내부 구성원이 함께하는 조직혁신 활동입니다. 조직혁신 TF 활동을 진행할 분과원을 공개 모집했고, 17명원이 조직문화분과, 대표사업분과, 조직체계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하여 TF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Q. 새롭게 설계된 조직 구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김혁진 첫 번째는 '조직의 슬림화'입니다. 기존 사무처장실을 폐지해 결재라인을 간소화했고, 경영 부문은 기존 4개 팀을 2개 팀으로 통합했습니다. 기획조정팀은 공연부문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흡수해 '기획홍보팀'이 되었고, 경영지원팀, 재무회계팀과 안전시설팀이 통합되어 더 큰 경영지원팀으로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분야 강화입니다. 신규 사업인 'G-ARTS 브랜드' 사업을 위한 부서를 신설했고, 공연기획팀은 전시 기능 강화 및 CS/회원제 업무를 흡수해 '공연전시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단 지원 업무 강화입니다. 기존 예술단운영팀 명칭을 '예술단지원팀'으로 바꾸었고, 기획실 사무단원분들이 대거 예술단지원팀에서 근무하게 되며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Q.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사업들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는 무엇일까요?

노은영 저는 '경기도형 예술생태계' 구축이라고 생각해요. 공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성과 공공성을 담은 콘텐츠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지속 가능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가와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지속 가

능성'과 '공동체적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Q.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손꼽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노은영 '예술단이 브랜드의 주체가 되자'라는 제안이요. 사업을 단순히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예술단 자체가 콘텐츠의 브랜드가 되고 전략이 되는 접근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구성원들이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방향을 설계하는 흐름으로 전환되었다고 느꼈습니다.

Q. 이번 조직혁신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김기현 무엇보다도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번 TF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은영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조직문화요. 각 부서와 예술단이 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그리고 서로의 목표와 어려움을 공감하려는 태도가 조직 전반에 퍼지길 바랍니다. 결국, 혁신의 핵심은 '사람'과 '관계'라고 생각해요.

김혁진 더불어, 여러 장단기 개선과제들이 실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 대행 수당 신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운영 규정 제정 등 많은 직원이 도입되기를 원하고 있는 과제들을 연관부서에서 빠르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조직혁신 TF 활동으로 새롭게 발견한 경기아트센터의 강점은?

김기현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였습니다. 특히 평소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예술단원분들까지 분과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게 인상 깊었고요. 그 과정에서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변화에 열려 있는 조직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노은영 단연 '사람'입니다. TF를 하며 여러 직군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어떤 변화든 가능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Q.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의 문화예술 컨트롤타워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노은영 '경기도다움'이 뭔지를 진지하게 묻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물리적 거점이나,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컨트롤타워의 역할 아닐까요?



Q. 실제로 구성원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변화에는?

노은영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누구 책임이냐?’보다는 ‘어떻게 같이 해결할까?’로요. 협업이란 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최소한 서로를 동료로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김기현 특히 조직개편 이후에는 부서별로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김상희 사장님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일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Q. 예술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도는?

김기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 문화예술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공연예술 사업을 해왔고, 일부는 선도해 온 것도 맞지만, 타 기초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창작자와 공연장, 지역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폼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면 경기도 공연예술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경기아트센터의 역할도 더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조직혁신의 성과를 보다 널리 퍼뜨리기 위한 향후 계획 및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은영 이제는 실행력이 중요한 단계죠. 현재 G-ARTS 브랜드 사업팀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리라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혁진 성과를 퍼뜨리기 위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다면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조직혁신’이라는 말이 좀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더 잘 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TF 활동이 그런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조직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가길 기대합니다.



손일훈 팡파레 *위촉곡
Il Hoon Son, Fanfare, Commissioned by GPO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a단조, 작품102
J. Brahms, Double Concerto for Violin and Cello
in a minor, Op.102

브람스 교향곡 4번 e단조, 작품98
J. Brahms, Symphony No.4 in e minor, Op.98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

바이올린 — 클라라주미강

BRAMHMS

티켓

서울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2만원

수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미취학아동 입장불가)

예매 & interpark 티켓 수원 1544-2344 서울 1544-1555

롯데콘서트홀 1544-7744

문의 031-230-3314

2025.9.18(목) 7:30PM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9.19(금) 7:30PM
롯데콘서트홀



지휘 — 김선우



첼로 — 지안왕

GGAC

경기아트센터 미디어데이 개최

‘정체성의 리디자인’ 선언

경기아트센터가 취임 130여 일을 맞은 신임 김상희 사장의 주도로 지난 7월 23일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조직혁신과 콘텐츠 전략을 아우른 미래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미디어데이’는 ‘경기아트센터다움’의 새로운 방향을 선언하고, 정체성 재정립과 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조직 전면 개편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아트센터의 조직은 기존 1처 2실 3본부 13팀 4예술단 체제에서 3실 4본부 9팀 4예술단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기능 통합과 전략적 선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속도·효율성·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다. 기획, 조직, 운영, 브랜딩 전략을 일관되게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조정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합한 기획홍보팀이 포함된 ESG경영실이 신설됐다. 대외협력실은 경기도, 도의회, 시군 공연장, 문화재단 등과의 실질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의 공동 기획과 공공 협의체 활동을 강화한다. 안전감사실은 공연장 중심 운영기관으로서의 산업안전·리스크 관리·윤리 감사 기능을 통합해 실질적 안전 확보와 책임경영 기반을 동시에 마련했다. 김상희 사장은 “개편은 구조가 아니라 문화로 완성된다”라며 “실행 가능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설계한 조직문화를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G-ARTS 브랜드 확립, ▲창작자 유통 네트워크 구축, ▲도민 접근성 강화, ▲지역 공연장 협력 체계 고도화, ▲공공예술 정책의 실천 플랫폼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NEWS

광복 80주년 기념 K-콘텐츠로 세계와 소통

‘K-콘텐츠 페스티벌’, 시흥 거북섬에서 성료

독립의 역사와 광복의 정신을 문화예술로 재해석하는 ‘빛으로 기억하는 광복, 2025 리부트(Reboot) 815’가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일대에서 펼쳐졌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K-콘텐츠 페스티벌, 미디어아트 쇼,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드론 쇼 등으로 구성된 종합 축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아트센터 등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여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와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K-콘텐츠 페스티벌’은 세계에 저력을 떨치고 있는 K-콘텐츠를 통해 광복의 가치를 풀어냈다. 경기아트센터 산하 네 개의 예술단 공연과 함께,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K팝 아티스트들이 가세하여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 민족이 쟁취한 독립의 의미를 조명했다.

양일간 4만여 명이 운집한 이번 축제는 8월 15일과 16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며, 거북섬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한여름의 열기 속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K-콘텐츠’를 통한 역사 인식 제고는 물론, 경기도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의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알리고자 한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문화예술로 풀어내어, 도민과 세계인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경기아트센터, 경기예술성장공유학교 교육 시작

경기아트센터는 지난 7월 26일, 경기도교육청 및 단국대학교와 함께 경기도형 예술영재 양성 프로그램인 '경기예술성장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선발된 학생 대상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음악 분야(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무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기아트센터가 사업 총괄 및 교육과정 운영, 무대 제공 등을 담당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적·제도적 지원 및 지역 예술영재 발굴을, ▲단국대학교가 교수진과 교육 시설을 제공하는 3자 협력 체계를 통해 추진된다.

올해 처음 모집한 제1기 프로그램에는 총 231명의 학생이 지원, 서류 및 영상 심사와 실기 오디션을 거쳐 최종 15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8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주간 실기 수업(10회), 이론 수업(4회), 향상 워크숍(3회) 등으로 구성된 42시간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피아노와 성악 교육은 단국대학교 교수진이, 현악과 관악 교육은 경기아트센터 소속 오케스트라인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맡는다. 교육 종료 후에는 발표 공연을 통해 학습 성과를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향후 경기도 내 문화예술 교육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청소년 예술 인재의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경기예술성장공유학교'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네스코 경기도무용단, 캐나다 밴쿠버 공연 성황리 마쳐

제23회 한인 문화의 날 공식 초청, 경기도-BC주 문화외교 교두보 마련

경기도무용단이 지난 7월 17일(목)과 19일(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23회 <KOREAN FESTIVAL CULTURAL HERITAGE 한인 문화의 날> 공식 초청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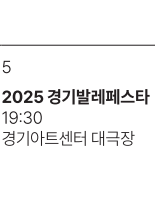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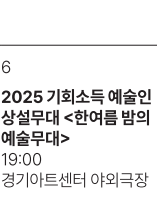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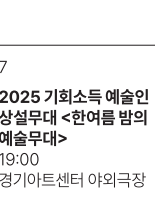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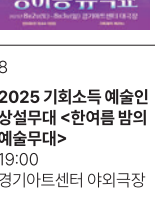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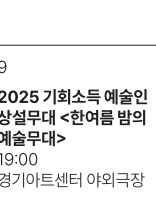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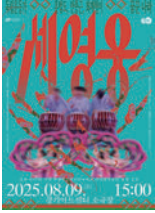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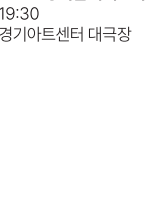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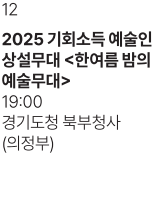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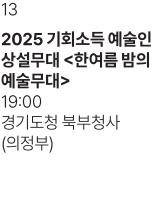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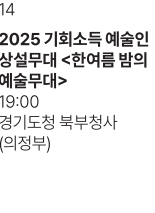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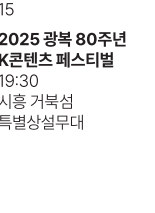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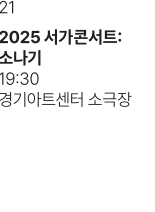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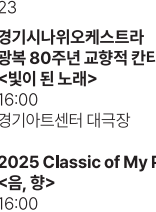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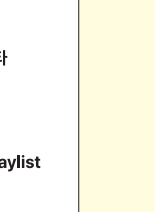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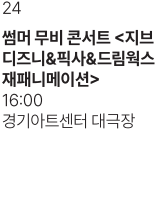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사단법인 BC 한인문화협회(회장 신동휘) 주최와 초청으로 기획된 이번 무대는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 간 자매결연(2008년) 이후 17년 만에 추진된 경기도예술단의 첫 현지 공연으로, 양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월 17일, 밴쿠버 Michael J Fox Theatre에서 진행된 메인 공연에서는 구궁, harmony, 한량무, 경기검무 등 정통 한국무용 레퍼토리로 구성된 60분간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어 7월 19일, Burnaby Swangard Stadium 야외무대에서는 부채춤과 농악무 등으로 보다 대중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다양한 현지 관람객들과 교감했다. 두 공연 모두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한국 전통예술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밴쿠버 공연은 경기도와 BC주가 문화로 이어지는 교류와 협력을 확장하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향후에도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예술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국제 공연과 문화 교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 08 | AUGUS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 캐리와 슈퍼콜라의 싱어롱 뮤직쇼 11:00 / 14:00 /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3 2025 경기발레페스타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4 2025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 19: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5 2025 경기발레페스타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6 2025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 19: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7 2025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 19: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8 2025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 19: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9 2025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 19: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2025.08.09. 15:00	 2025.0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경기발레페스타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광복80주년 기념 최재형고려인민족학교 아리랑무용단 초청공연 <새 영웅> 15: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 번개맨 시즌2 뮤지컬 <번개맨!VS번개맨?> 11:00 / 14:00 /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0 2025 번개맨 시즌2 뮤지컬 <번개맨!VS번개맨?> 11:00 / 14:00 /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방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아트 스토리쇼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 19:00 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	 12 2025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 19:00 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	 13 2025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 19:00 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	 14 2025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 19:00 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	 15 2025 광복 80주년 K콘텐츠 페스티벌 19:30 시흥 거북섬 특별상설무대	 2025.8.15. 19:30 시흥 거북섬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4 썸머 무비 콘서트 <지브리& 디즈니&픽사&드림웍스& 재패니메이션>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8.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31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티켓 문의 031-230-3441~2(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 상기 공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과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방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QR 코드를 통해서도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6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7 THE GREATEST : 불후의명곡 정동하×알리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0 움직이는 이야기 <은혜 깊은 까치> 11:00 경기국악원 국악당	11		13 최현우 19+1 15:00,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4 최현우 19+1 13:00,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7 움직이는 이야기 <은혜 깊은 까치> 11:00 경기국악원 국악당	18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9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 19:30 롯데콘서트홀	20 가족뮤지컬 <에그박사 - 해적 보물섬의 비밀> 11:00 / 14:00 /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1 가족뮤지컬 <에그박사 - 해적 보물섬의 비밀> 11:00 / 14:00 /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3	24 움직이는 이야기 <은혜 깊은 까치> 11:00 경기국악원 국악당	25 2025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6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with.백혜선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7 루드비히 반 베토벤 컴플리트 피아노 트리오 II 17: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8 DMZ 재즈 오케스트라의 Swing & Funky 15: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30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고객만족도 조사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고객만족도 조사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나은 예술과만남을 만듭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www.ggac.or.kr

예술과 만나다

<예술과만남>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의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숨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화 예술의 가장 핫한 이슈를 만나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경기아트센터 대표 매거진 <예술과만남> 콘텐츠와 프로모션 소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감 넘치는 공연 열기를 전합니다. 풍성한 SNS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마련한 문화 예술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tube.com

딱! TV 경기아트센터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내 손안에서 펼쳐지는 명작 공연 실황, 브이로그, 인터뷰 등 다양한 현장 소식과 공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www.ggac.or.kr

경기아트센터는 다양한 공연과 예술 문화를 선도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국내외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지역 예술인과 관객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새로운 시작, 성장의 출발점”

예술인도 예술을 처음 마주한 때가 있다. 무심코 지나쳐가던 악기 소리가 문득 귀를 사로잡았을 때, 난생 처음 보는 새로운 공연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순간 그들은 알았을까? 처음 그때 그 순간이 자신을 예술인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을.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오며 도중에 포기하고 싶던 때도 있었고, 도망치고 싶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새로운 발전을 믿으며.

8월 8일 <Artist talk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촬영 현장에서

경기국악원

움직이는 이야기

네번째 이야기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은혜 깊은 까치

전석 2만 2천원

24개월 이상 관람가

매주 수요일 11시
9월 10, 17, 24일
10월 1, 15, 22, 29일
11월 5일
경기국악원 국악당



예매: NOL interpark 티켓 | 문의: 031-289-6423

